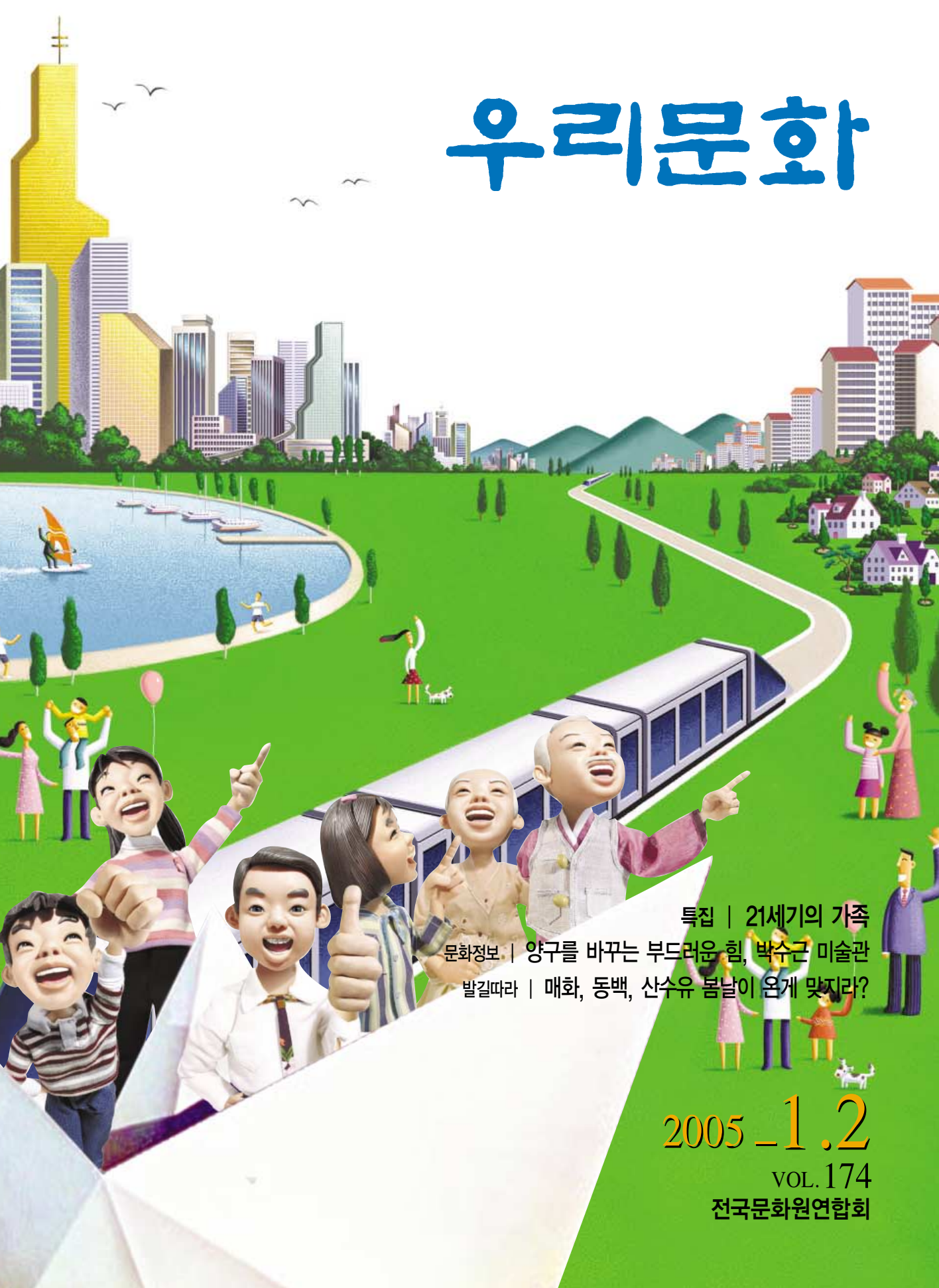


우리문화



특집 | 21세기의 가족
문화정보 | 양구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박수근 미술관
발길따라 | 매화, 동백, 산수유 봄날이 온게 맞지라?

2005 _ 1.2

VOL. 174

전국문화원연합회



서민들의 삶처럼 갯벌도 퐁퐁 얼어붙었다. 그러나 머잖아 봄이 오면 푸른 물
결과 하얀 파도가 넘실 거릴 것이다. 오는 3월 5일은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다.

동작문화원 전국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서 '대상'



부평, 천안, 함양은 최우수상
동작문화원이 전국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가 6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2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 전국 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은 동작문화원이 안았다.

동작문화원은 동작구와 협력관

계 구축을 통해 최우수 시설 마련 및 재정지원을 이루는 등 동작문화원 기반조성 5개년계획 수립과 실천이란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 직원 급여제도 개선 및 전통예술협회를 비롯한 각종 협의회 운영 등에서 모범이 됐다.

최우수상에는 인천부평문화원, 충남천안문화원, 경남함양문화원이, 우수상에는 대전유성문화원, 강원강릉문화원, 충남당진문화원이 선정됐다. 또 서울에서 문화강좌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광진문화원과 경남김해문화원, 충북음성문화원은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충남태안문화원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직원 인사발령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는 2005년 1월 3일자로 아래와 같이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총무국장(1급) : 장상호
- 문화사업부장(2급) : 전명찬
- 문화사업계장(4급) : 임영훈
- 대리(5급) : 김진미

7월부터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전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구비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1월 27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폐지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자율기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재탄생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현장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화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전문적 예술지원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1인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 즉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 위촉으로 최종 구성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이다.

문화원 임직원 24명 문화부장관 표창

조원근 남양주문화원장, 조성돈 인천부평문화원 사무국장, 이선복 서울 송파문화원 간사 등 24명의 문화원 임직원이 지난 1월 31일 한국의집에서 열린 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

▲문화원장 : 조원근(남양주), 박용해(의왕), 김석렬(영동), 장영석(부여), 설동찬(순창), 오용갑(전남지회), 이우중(울릉), 허백영(의령) 이상 8명.

▲사무국장 : 조성돈(부평), 지하영(대전동구), 이인수(이천), 홍성진(횡성), 이정우(천안), 김희선(정읍), 김호근(보성), 백락구(포항), 현태용(제주) 이상 9명.

▲간사 : 이선복(송파), 김동주(서울중구), 김미강(동래), 정현주(광주서구), 김금자(울주), 김정녀(강릉), 허모영(김해) 이상 7명.

전국문화원장 연찬회 2월 20~21일 올림픽파크텔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대표회장 강연도

전국문화원장 연찬회가 2월 20일(일)부터 21일(월)에 걸쳐 1박2일동안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다.

전국 221개 지방문화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첫째날인 20일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봄맞이 문화가족 큰잔치' 공연(자세한 내용은 42면)을 관람하고 이튿날인 21일에는 올림픽파크텔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김우중 동작구청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지자체와 문화원간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지방문화원장들은 문화체험 프로그램 발전방안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한편 전국 문화원장들이 대거 모이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권용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대표회장(강남문화원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 협력방안에 대해 강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Contents

January · February 2005 _ Vol 174

특집

21세기의 가족

33

만남

10

“술도 보며 나무도 보며
오천년 역사속에 감춰진
‘한민족 키워드’ 찾아야죠”

인터뷰

18

“문화재 돌려받는건
대한민국 자존심”

문화정보

양구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박수근 미술관

48

발길따라

매화, 동백, 산수유
봄날이
온게 맞지랴?

77

- | | | |
|----|-----------|--------------------------|
| 4 | 신년시 | 문화의 동력으로 날아오르자 |
| 6 | 특별기고 | 지자체와 문화원의 바람직한 관계는? |
| 14 | 화보 | 닭은 모든 것의 처음을 뜻하는 동물 |
| 16 | 이달의 문화인물 |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 |
| 22 | 문화토론 | 일제지명 청산과 서울지명 찾기 |
| 28 | 문화논단 | 지방문화원의 혁신 |
| 46 | 화보 | 탈과 사람 |
| 54 | 수필 | 건전하고 사이좋은 문화, 인터넷이 앞장선다 |
| 56 | 지역따라 노래따라 | 나라 잃은 설움 '목포의 눈물'에 담아 |
| 60 | 문화뉴스 | 전국문화원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 등 |
| 73 | 문화원 탐방 | 함께 웃고 나누는, 언제나 찾고 싶은 문화원 |
| 82 | 교육여행 |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新 이색박물관 |
| 86 | 책꽂이 | 죽비소리 등 |

문화의 동력으로 날아오르자

새해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눈이 부시구나.
참으로 신기롭구나.
새 하늘의 지평이 열리고
바람도, 나무도, 구름마저도
새로운 외출복으로 갈아 입었구나.

이 새아침,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절된 겨레의 혈맥을 잇는
하나의 불기둥을 지필 일이다.

또 이 아침, 우리가
마음 속으로 깊이 다져야 할 일은
이 풍요 속에서도 빈곤 속을 살아가는
불우하고 소외된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 일이다.

새해에는 또
아름다운 낙조의 바닷가를 거닐며
시 한 구절 낭송하는 여유로움으로

적조하게 지냈던 고향친구에게
고전(古典)의 어투로
안부편지를 띄우며 살자.

그리고 새해에는
누이같이 곱던 아내의
주름살을 목련처럼 바라보며
위로의 눈길을
보내며 살자.

새해에는 날아오르는
새의 기상처럼
문화의 동력으로
지역문화를 일구며,
향토문화를 지키며,
생활문화를 펼치며,
문화가족들은
화해의 손길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 보자.



글 _ 권웅태 | 전국문화원연합회장 · 시인
국회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경향신문 '신춘문예' '자유문학' 추천
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이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인권특별위원장), 강남문인협회 회장, 시집으
로 '아침의 반가' '남풍에게' '북풍에게' 등이 있다.

지자체와 문화원의 바람직한 관계는?





문화 공동체 살리기, 문화원이 답이다

문화가 곧 상품이고 경쟁력이며 문화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 요즘 한류 열풍이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올드보이’는 원작료 1,500만원을 주고 수입한 일본만화를 영화로 만들어 220만 달러에 되파는가 하면, 온사마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2조원을 넘어 섰다는 소식까지, 문화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던 1998년만해도 IMF 한파로 인해,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마치 사치스런 행정 지원인 것처럼, 문화 생활 향유를 말하는 것이 소위 가진 자들의 고상한 취미로 받아들여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위해 문화원 설립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우리구에서는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구민의 이해와 참여부족으로 문화원 설립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는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라는 연결 고리를 통해 구민이 하나 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복지 동작의 기틀을 쌓아야겠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당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73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들여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였고, 드디어 1998년 12월 상도동에 동작문화원을 설립·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초현대식 문화복지 공간인 동작문화원은 현재 상도동 동작문화복지센터와 사당동에 분원으로 사당문화회관을 두고 있으며,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 운영, 이것이 바로 성공 사례!

동작문화원은 별도의 사단법인체로 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을 임원진으로 한 독립된 민간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문화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직원을 공채 선발해 근무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설립 당시 1억 5천만원에 불과하던 자체 기금이 현재 약 7억 7천만원 규모로 증가하는 등 공공성과 수익성면에서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됐을뿐 아니라 2004년 전국문화원연합회가 220개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관리 운영 상황을 평가한 결과 최고상인 대상에 선정되어 구민의 문화 복지향상에 기여한 문화 쉼터로써 으뜸가는 문화원임을 공인받았습니다.

동작문화원이 최우수 문화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 문화원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 즉,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 개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고유문화를 선양하고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향토 자료 발굴에 앞장섬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보급, 발전시키는데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지역 주민들도 수강하는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문화대학 프로그램 역시 동작문화원 운영의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소양과 소질, 자기 개발을 도와주는 컴퓨터, 생활영어, 서예, 한국 무용 등 31개 강좌에 매분기 3천여명이 수강, 현재까지 6만여명이 넘는 구민들이 문화대학을 졸업했으며,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지방문화원은 구민들의 삶속으로 찾아가는 문화,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접 주관하던 '사육신 추모문화제', '동작주부백일장', '문화 유적지 답사' 등 10여개의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 운영토록해 구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터주었습니다.

이밖에도 건전하고 우수한 영화를 선정, 상영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를 제공했으며, 각종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적 문화자원을 네트워크화해 문화 행사의 주관자로 참여토록 했습니다. 관내 문인협회 및 사진협회 등 예술인 단체와 연계한 각종 전시회 유치나 어린이집 재롱잔치, 음악학원 연주회, 중·고등학교 예술제 개최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문화 주체가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동작문화원은 시설면에서도 종합예술공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최상급의 무대와 객석, 첨단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구민이 원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강좌 개발을 위해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좌의 질을 좌우하는 유능한 강사 유치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문화원이 발전하려면 첫째, 자치단체장이 문화마인드를 갖고 문화시책을 세워 적극 후원하고 함께 동참해야 하며 둘째, 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위임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과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고 셋째, 문화원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왕래가 편하고 시설이 현대화되어 명실공

히 문화센터 역할을 해야하고 넷째, 정치나 정당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다섯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우수프로그램 개발과 동아리 활동 등으로 발표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되어 문화원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문화원 재정의 안정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작문화원은 저렴한 수강료로 문화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 문턱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대한 제안

지역 문화의 첨병인 문화원은 역사속으로 묻혀져가는 지역 고유 문화를 복원, 계승함으로써 지역의 뿌리를 찾고 향토 문화를 재현해 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산실로써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지역 문화를 발굴, 보급해 미래의 문화 청사진을 그려내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작문화원이 그러하듯, 지방 문화원은 구민들의 삶속으로 찾아가는 문화,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5일 시대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부와 어린이, 직장인, 노년층 등 문화 수요자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세분화, 전문화함으로써 문화 혜택 향유에 있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원에서 가르치고 배운 내용들이 문화원안에서의 교육으로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사회로 환원하고 교육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동작 문화원의 경우처럼 문화대학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소그룹 문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원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들이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위문공연을 펼치는 문화 이벤트 겸 자원 봉사로 이어지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또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 결연을 통한 활발한 문화 교류도 문화원 운영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작 문화원은 서귀포문화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상호 방문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문화 전쟁의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들이 독특한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려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또다른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문화 행정은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섬세하게 전문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문화 행정의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로 적극 눈을 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한 우수인력은 아웃소싱하고, 문화원 운영의 우수 사례들은 교류하고 벤치마킹하며, 문화 수요자들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민의 문화 생활과 평생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지역 문화 사업 육성과 문화 사랑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 운영은 지자체 문화 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동작문화원을 필두로 지역 문화원이 지방 문화를 꽃피우는 전진기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 _ 김우중 | 동작구청장

홍성고·연세대학교 문과대학·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회 이사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민선 제3기 동작구청장(現),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주요저서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1987), 학부모와 청소년(1991), 기업가 출신 구청장의 경영마인드(2004).



2005년의 화두는 단연 '경제 살리기'에 집중돼 있다. 이 화두와 더불어 다른 한 편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에 관한 연구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한 나라의 경제가 '외형'이라면 정신문화는 '내면'이자 전방위에서 지속적으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에서 정신문화의 내면을 형성해냈고 파워를 끌어올리는 곳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정신문화의 산실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뉴리더'로 윤덕홍(58) 원장이 13대 원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간판마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 단 것이 변화의 단적인 예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의 개칭은 '제2의 개원'을 의미할 뿐 아니라 윤 원장이 한국 정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화’ 한국을 알리는 일

경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5위에서 20위 수준이다. 이는 국력도 그만큼 높아져 있음을 의미한다. 월드컵 이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대한민국’ 하면 ‘아~ 코리아!’를 연발하고, 동아시아를 달군 한류의 열기는 서양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한국문화의 저력이나 하는 대목에서는 누구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덕홍 원장이 연구원에 와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한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가 경제력만 가지고 세계에 어필해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이 알려져야 할 때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라는 코드로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떠올린다면 문화의 뒷받침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하회탈춤이나 경주의 석굴암, 첨성대 등을 보면 외국인들도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전통문화를 경시해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살려나가는 작업은 중요하지만 문화재만 가지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윤 원장은 정체성 확립의 전제조건으로 한민족을 받쳐주고 있는 기본 사고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민족이 만주, 중국, 시베리아, 미국 등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강인하게 살아가는 저력, 또 한류로 일컬어지는 ‘윤사마(배용준)’의 저력 등을 통해서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문화가 세계문화와 합류할 수 있는 독특한 이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학문적으로 풀고 한국의 이미지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국제사회에 보편화된 가치기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은 여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미국하면 청교도 정신을 떠올리듯이 우리도 교육학에서는

“숲도 보며
나무도 보며
오천년 역사 속에 감춰진
‘한민족 키워드’ 찾아야죠”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홍익인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러한 것에 대해 많은 공을 들여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꿰뚫어 한민족,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작업의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서 있는 셈입니다.”

세계화된 한국인의 컨셉 찾아야

윤 원장은 한국의 대표 키워드를 찾는 작업의 주 컨셉은 역시 전통문화이고 ‘한국학’이라고 말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된 지난 1977년 당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발전과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는 두 개의 큰 컨셉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경제 성장과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는 KAIST라든가 KDI 등이 맡았고 정신문화 쪽은 ‘(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몫이었다. 하지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정신문화’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오명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윤 원장은 애초의 큰 컨셉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그 개념이 명료해진 오늘, 한국의 정신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법론으로 ‘세계화된 한국인의 컨셉’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윤 원장은 ‘한국학’의 영역과 연구방법론을 정한 다음 그 연구결과를 세계화하는 작업, 국민들에게 대중화시키는 작업, 전 세계가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산화하는 작업, 그 연구결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

들고 후속 세대를 키우는 작업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차세대 지도자가 될지도 모를 외국인들에게 한국학을 공부시킬 작업 등과 관련된 여러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시절 이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방언자료집〉 〈고문서집성〉 등 획기적이고 위대한 성과물을 선보여 학계에서 높이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지금도 그 힘들고 고된 작업들은 계속되고 있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은 통일의 준비작업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임무’와 관련하여 10년 뒤 혹은 20년 뒤를 내다보는 윤 원장의 거시적인 안목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교육부장관 시절 윤 원장은 한국의 동네마다 중구난방으로 존재하고 있는 민속문화를 전자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의 장차관들과 논의를 통해 10계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일은 책상 앞에서의 생각만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당시 윤 원장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문제였다.

“향토문화를 전자시스템화하는 작업자체가 간단한 일도 아니려니와, 전국에 산재한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 연구는 연구원의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221개의 지방문화원, 그에 따른 민간사업자, 각종 향토문화관계자들을 모두 끌어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인력을 조직화



하는 게 굉장히 귀중한 작업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 원장의 ‘인력 네트워크화’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와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중심 아이탬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만 들어내지만 전국에 산재한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연구하는 작업은 전국의 문화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의 네트워크화로 작업해 나가야 합니다. 또 그 어려운 작업을 넘어서면 북한의 향토사학자들에게 우리의 포맷을 제시하고 함께 향토문화연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훗날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도 될 것입니다.”

廣大精微 통해 法古創新 지향

‘法古創新’을 표방한다는 윤 원장의 전통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은 그의 성장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5형제 중 셋째인 윤 원장은 법도와 전통을 중시하는 엄격한 부친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겨 넣으며 성장기를 보냈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윤 원장의 안목과 학자로서의 치밀함,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큰 걸음은 아마도 그

런 부친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윤 원장은 원장실 한쪽 벽면에 있는 액자를 가리켰다. 액자에는 ‘廣大精微’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쉽게 풀이하자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보자는 말이지요. 오천년 유구한 역사를 굽어 본다면 우리 민족 문화는 실로 장대하고 광대한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동네마다 개인마다 우리 선조 개개인의 생활이 다 스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대한 숲을 마주할 때는 아주 사소하고 미세한 부분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광대함과 세밀함, 옛것과 새로운 문화의 충돌, 이것들의 조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 모든 것에 초석을 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윤 원장이 임기 3년 동안에 해내기에 너무나 벅찰 지도 모를 일이다.

윤원장의 法古創新, 廣大精微의 구호가 빛날 날을 기대해 본다.

글 _ 박계현 기자

“우리의 하회탈춤이나 경주의 석굴암, 첨성대 등을 보면 외국인들도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전통문화를 경시해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살려나가는 작업은 중요하지만 문화재만 가지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닭은 모든 것의 처음을 뜻하는 동물

12지의 열번째 ... 늘 사람과 함께 해 관련 속담도 많아



올해는 을유년(乙酉年) 닭띠 해다. 닭(酉)은 12지의 열번째 동물에 속한다. 닭은 닭목의 꿩과에 속하는 조류이다. 닭은 한꺼번에 20알 정도를 품어 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다. 산란수는 이들에 한알 꼴이 보통이다.

예로부터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닭의 날이라고 하였다. 닭은 모든 것의 처음을 뜻하는 동물이다. 이육사의 시 <광야>에도 태초의 이미지를 닭우는 소리로 간접표현하고 있다.

닭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야생하는 들닭을 잡아서 사육개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닭이 들어온 것은 6, 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닭은 사육된 것으로 문헌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삼국지> <동이전>이나 <후한서>에는 우리나라에서 꼬리 긴 장미계(長尾鷄)를 키운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도 꼬리 긴 닭이 등장한다. 우리나라 난생설화에도 닭은 오래 등장한다.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고, 그의 왕비는 계룡의 갈비뼈에서 났으며, 김알지가 태어날 때는 숲에서 닭이 울었다 한다. 그 숲을 계림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연유된다. 중국의 <해동역사>라는 책에 '조선에서는 닭을 부를때 '구구'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어 닭이 민가에 존재한지가 매우 오래된 것만은 사실인 듯 하다. 또한 경주 천마총에서 계란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 이전부터 길러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 때에는 일부러 궁중에서 닭을 여러 마리 키워 시간을 파악했다고 한다. 닭은 잡식성이면서 번식성이 강하다. 또 질병에는 강하고 사람에게서는 식량자원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닭은 대체로 길조로 여겨져 왔으며,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했다. 머리의 뿔은 문(文)을, 발은 무(武)

머리의 뱃은 문(文)을, 발은 무(武)를 상징했다. 또 적과 맹렬히 싸우므로 용(勇)이 있다고 여겼으며, 먹
이가 있으면 혼자 먹지 않고 자식과 무리를 불러 함께 먹는다 하여 인(隣, 仁)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하루
도 거르지 않고 시간을 알려주니 신(信)이 있다고 여겼다



를 상징했다. 또 적과 맹렬히 싸우므로 용(勇)이 있다고 여겼으며, 먹이가 있으면 혼
자 먹지 않고 자식과 무리를 불러 함께 먹는다 하여 인(隣, 仁)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간을 알려주니 신(信)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닭은 예로부터
길조로 알려지고 있다. 혼례 때 닭을 예상(禮床)에 올리는 것도 이같은 다섯가지
덕과 무관치 않은 듯 싶다.

또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종종 인
용되곤 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민주주의는 온다’는 게 대표적.
하지만 닭에 얽힌 부정적이거나 듣기에 좋지 않은 속담들도 많다. ‘닭 싸우듯 한다’
는 말은 서로가 이기지도 못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투닥거린다는 뜻이다. 닭대가리라
는 말은 생각이 깊지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는 뜻으로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다. 닭
고집이라는 말은 큰 일도 아닌 하찮은 일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낮춰 이르는 말
이다. 이처럼 닭에 얽힌 얘기가 많은 것은 사람 곁에 닭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게 닭이었다. 소나 돼지는 가축중의 제일로 발농사 용으로 최고
거나 재산목록으로 최고였지만 닭은 하나쯤 선심을 쓰면 비용에 비해 정성이 돋보
이는 실익 있는 가축이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백년손님인 사위에게 씨암탉을 대접
하는 풍속이 있었던 듯 싶다.

그리고 삼백예순날 중 복날에는 닭들이 수난을 면치 못한다. 닭을 재료로 하는 음식
으로는 삼계탕과 술꾼들이 즐겨 찾는 닭꼬치, 그리고 닭갈비, 닭개장, 닭찜, 닭곰탕,
닭김치, 닭백숙 등이 이름나 있다. 닭띠해에 태어난 사람은 섬세하며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수적이고 고집쟁이로 불리기 쉽다. 광고업자, 카페주인,
여행가, 미용전문가, 의사, 군인 등이 어울리고 배필감으로는 소피, 옹피, 뽕피가 제
격이다. 그리 좋지 않은 만남은 말, 양, 쥐, 개, 원숭이, 범띠다. 가장 상극을 이루는
만남은 토끼띠와 개띠. 닭의 화려함과 허풍을 감수성이 강한 토끼와 개는 믿으려 하
지 않는다는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속설일 뿐이다.

쿨리지 효과

닭과 관련된 세계적 용어로 바로 ‘쿨리지 효과(Coolidge effect)’가 있
다. 수컷이 같은 암컷과의 반복된
짝짓기에서는 지치지만, 다른 암컷
들과 번갈아 짝짓기를 하면 힘을 낸
다는 사회생물학적 용어. 어느날 미
국의 30대 대통령인 쿨리지가 그의
부인과 함께 양계 농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 때 쿨리지 대통령의 부인이 정력
적인 수탉을 바라보며 농장 주인에
게 “저 수탉은 참 정력이 대단하군
요. 저렇게 암컷과 매일 관계를 가
지면서도 전혀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는군요. 대통령 각하에게도 이 이
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를 들은 쿨리지 대통령이
농장 주인에게 “그 수탉이 암탉 한
마리하고만 관계를 계속하던가
아니면 매번 다른 암탉하고
하던가?” 라고 물은 후
“바로 그 점을 내 마누라에
게 말해 주게나!”
라고 말했다
고 한다.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

1

음악

정정열(丁貞烈) 1876~1938

근대 5명창중 한사람.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창극발전에 큰 공을 세움

2

문화

이 예(李 藝) 1373~1445

대장경 및 불경 일본국왕에 전달, 일본식 자전물레방아 도입, 사탕수수의 재배와 보급 건의 등 조선전기 한일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함.

3

문학

강경애(姜敬愛) 1906~1944

식민지시대 최고의 리얼리즘 작가. 사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주변화된 하층 여성을 대변, 만주지방 항일무장운동가들의 고난의 삶을 그려냄. 주요작품으로 「인간문제」, 「소금」, 「지하촌」 등이 있음.

4

문학

신동엽(申東曄) 1930~1969

분단현실 극복에 역점을 둔 수많은 창작을 통하여 한국 현대문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대표적인 민족시인. 시집으로 「아사녀」, 장편민족서사시 「금강」, 「껍데기는 가라」 등이 있음.

5

한국학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

조선후기 여성성리학자. 전통유교시대의 남성전유물이었던 성리학을 평생 탐구. 저서로 성리학의 쟁점이 되었던 '이기심성'과 '사단칠정'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탐구한 「윤지당유고」가 전해짐.

6

한국학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조선전기 문신. 성종시대 전장문물의 정비에 공헌하고, 성리학 사림파의 종사로 다수 제자 배출. 저서로 「동국여지승람」 55권 증수, 「점필재집」, 「유두류집」 등이 있음.

7

한국학

강정일당(姜靜一堂) 1772~1832

각고의 수양과 심오한 학문 그리고 도덕적 실천을 훌륭한 문장으로 남긴 조선시대 여류문인. 유교경전 연구를 비롯하여 30여권에 이르는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대부분 유실. 사후 남편 윤광연에 의해 수집된 「정일당 유고」가 전해짐.

8

문학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학자. 호는 백운거사. 몽골군의 침입을 진정표(陳情表)로써 격퇴한 명문장가. 저서로 「동명왕편」, 「동국이상국집」, 가전체소설 「국선생전」이 있음

9

종교

나 철(羅 喆) 1863~1916

민족고유의 정신인 국학사상을 계승했으며 문화·독립운동으로 일제하 만주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함.

10

한국학

이승휴(李承休) 1224~1300

고려문신으로 호는 동안거사(動安居士).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함께 고려 3대 역사책중 하나인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저술하여 민족문화의 우월성과 역사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함.

11

무용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

순조의 세자. 정재(궁중무용)에 관심이 많아 정재의 가사를 직접 지음. 악인(樂人)으로 구성된 구후관이라는 전문악단을 만들어 궁중연회에 소용될 어전의 주악을 담당케 하는 등 조선후기 정재의 황금기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12

미술

최 북(崔 北) 1712~1786

조선후기 화가, 중국산수의 형세를 그린 그림만을 숭상하는 당시의 경향을 비판하고 조선의 산수를 그린 진경산수화의 중요성을 강조, 대담하고 파격적인 조형양식을 이루어 조선후기 회화 발전에 이바지.



1994년 9월 정부는 프랑스측에 고속철 테제베(TGV)를 수입하는 대신 하나의 조건으로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한 외규장각 고문서의 반환을 약속받았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나 테제베는 운행을 시작했지만 우리 고문서는 돌아오지 않은 채 정부는 프랑스와의 문화재 반환 협상과정에서 미숙함만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해외 문화재 유출 현황과 정부의 대처방식과 실패사례를 추적하는 일을 진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비전추진연구단의 조부근(55)과장은 최근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민속원)라는 책을 펴내고 해외유출 문화재의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독 자라면 궁금할 것이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비전추진연구단의 조부근 과장은 왜 그토록 해외유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를 말이다. 지난 85년과 91년, 조과장은 두 번에 걸쳐 LA 한국문화원에서 근무를 했다. 당시 그는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에서 한국인들과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됐다.

LA 문화원 시절 문화재와 조우하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진짜 좋아서 하더군요. 요즘 우리사회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때 만난 미국인들은 웰빙식의 사고로 일을 즐기며 윤택한 삶에 집착하는 현장을 보면서 저도 취미생활을 만들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부장이 선택한 취미가 문화재 탐구였다. (문화재는 흔히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으로 표현되는데 이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천연자원의 개발이 활기를 띠게됨에 따라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일어난 민간

해외유출 문화재 연구 20년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비전추진연구단 조부근 과장

“문화재 돌려받는건 대한민국 자존심”

의 자발적인 보호 운동의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물이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됐다)

당시 LA에는 다인종 다민족이 모여 살다보니 부조물, 비석, 그림 등의 아시아권 문화재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마치 인사동 뒷골목을 연상시키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면서 작은 충격을 받았다.

“각국의 엄청난 문화재가 이역 멀리 미국에 모여있다는 것이 의아했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문화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화재 수집 및 탐구에 관한 취미생활을 해나갔어요.”

문화재 탐구의 취미를 매개한 것이 옥션이었다. 조과장은 문화재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이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문화재가 크고 작은 가격의 거래로 매우 활성화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미국 등 서양은 이미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오래전부터 식민지 국가에서 문화재 수탈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고 문화재 시장은 이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문화재 유출이 시작돼 미군정 시절엔 군인들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85년 제가 LA 문화원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LA 타임즈 중고물품 교환면에서는 한국문화재를



판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거래되던 도자기류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재들은 구한말과 미군정 시절과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일본으로의 문화재 유출은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후 서구 열강의 요구에 의해 문호가 개방된 이후 일본인들은 문화재를 대량으로 유출하기 시작해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일본 총독부 산하에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이 포진돼 우리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수탈했다는 것.

특히 우리 조상 대대로 손을 댈 생각은 어떻게든 할 수 없었던 분묘에 대한 도굴을 자행한 일본인들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문화재 반환 외교협상’ 연구해 박사학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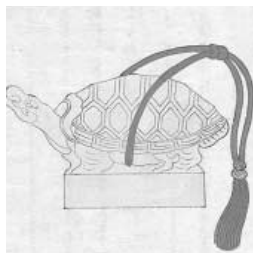
조과장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2003년 1월 하순까지 중앙국립박물관 섭외국장직을 하면서 해외 문화재를 국내에 소개하는 업무를 맡게됐다. 이때부터 그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 나라별로 우리 문화재의 유출을 조사하고 연구해하면서 지난 2003년에는 ‘문화재 반환 외교 협상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8만점의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한 곳에만도 10만점이 넘게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죠.”

그는 문화재 연구를 하면서 과거 열강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가령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 당시 문화재 병력을 따로 포진할 만큼 문화재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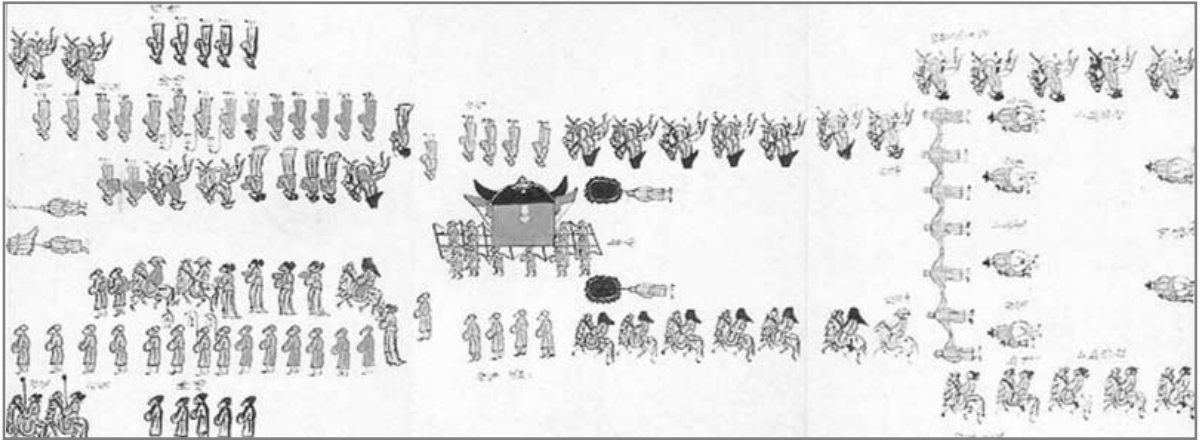
또 프랑스 대사관에는 외교관과 통역관이 문화재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 이미 프랑스의 플랑드 프레스는 구한말 한국 문화재의 이모저모를 적은 책을 발간할 정도로 프랑스의 문화재에 대한 안목은 높은 편이다. 그는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재에 대한 노하우와 협상력이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고 꼬집는다.

“지난 94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YS가 일단 원칙적인 면에서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을 약속하고 협정을 맺었지요. 그런데 프랑스측에서는 문화재 영구 교류 전시를 제안했고 양국은 실무적인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요구하는 문화재를 한국에서는 별 성의없이 준비를 했어요.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문화재를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는 안이한 의식이 문제였죠.”



〈박병선의 『이조왕실에서의 의전규범』에 게재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례에 수록된 삽화들〉

결국 외규장각 고문서 문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한국의 교류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가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계속 퇴짜를 놓던 프랑스는 결국 실무협담 종료를 선언했고 우리로서는 이도저도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결혼식 행렬도

중장기적 반환 대책과 전문성 갖춘 협상력 절실

조과장은 이번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 사건에서 보여지듯 정부의 문화재 반환 협상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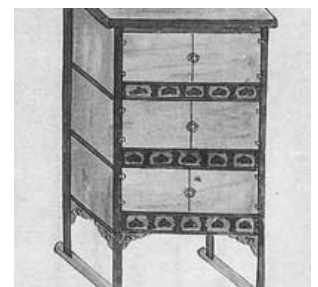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문화재 반환 대책이 소홀합니다. 또 외교통상부의 경우 문화재 전문성이 부족하고 문화관광부는 협상의 주무 부서가 아니다 보니 자연스레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협상이 부재하니 문화재 반환이 요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해외유출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조사를 정책으로 내놓고는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짜여진 해외유출 문화재 대책은 오는 2011년까지 우리문화재 소장 주요박물관과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DB구축 및 한국문화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과장은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해외유출 문화재의 반환을 강력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해외유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시민단체, 상대방 국가의 단체 등과 연대해 정부를 포함한 범국민적 문화재 반환운동을 전개해야 이뤄낼 수 있어요. 해외소재 박물관에 소장된 수 많은 우리의 문화재는 그리 쉽게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과장은 앞으로 해외유출 문화재 되찾기의 전도사를 자임하려고 한다. 올해 개강되는 박물관 대학에서 ‘해외문화재 유출의 실태’란 제목의 강좌를 직접 강의하려는 이유도 문화재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문화재 반환운동을 전개하려는 목적에서다. 얼마전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반환받기 위해 실시한 정부차원의 회담에 이어 민간 대표를 임명해 진행해온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측 민간 대표였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대표직에서 해촉하고 조만간 고위직 출신의 외교관을 ‘외규장각 협상 전담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에 제대로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을까? 20여년 동안 우리문화재의 해외유출을 연구해 온 조과장의 주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글 _ 김준호 기자



일제지명 청산과 서울지명 찾기

서울은 6백년 전통의 문화도시다. 백제의 한성 위례로 거슬러 올라가면 1천 6백년의 전통문화도시다. 이제 그 이름에 어울릴만큼 이끼가 끼고 향내가 풍긴다. 어디를 가나 역사와 전설이 화석처럼 쌓여 숨쉬지 않은 곳이 없다. 사랑받는 명소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을 에워싼 산과 강을 비롯해서 공원과 고궁, 사적지와 능, 가람과 놀이마당, 전통가옥과 유명건물에 이르기까지 겨레의 얼과 시민들의 질박한 삶의 애환이 서리지 않은 곳이 없다. 서울을 굳이 외국의 수도와 견주는 건 부질없는 노릇인지도 모른다. 도시는 그 나름대로의 전통과 개성이 있기 때문이다.

땅이름의 본 뜻과 그 바로잡기의 필요성

사람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땅에도 땅이름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대부분 어느 누가 특별히 지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필요에 따라 ‘어느 곳’을 지칭하다 보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굳어져 홀이름씨(固有名詞)로 된 것이 많아졌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땅이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땅이름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얼과 혼, 그리고 역사와 전설이 서려 있다.

그 속에서 조상들의 훈훈한 숨결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땅이름 속에는 각 지방 특유의 방언이나 옛말(古語)이 숨어 있기도 해서 지방말과 옛말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런 땅이름이 차츰 소리웁김(音借)이나 뜻빌림에 따른 한자식 표기로 나타나면서 원래부터 불러왔던 땅이름의 본래 모습이 어렵게 된 것이 많아졌다.

또 거기에다가 종교의 영향, 특히 불교가 전파되면서 산 이름 가운데 명산은 불교지명으로 그 이름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이웃나라 중국을 사대하면서 서너 자리의 우리 땅이름이 거의가 두 자리의 중국식 땅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더욱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국토를 침탈하면서 동양척식식민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토지조사사업을 한답시고 우리 땅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지개명(創地改名)한 것이 서울을 비롯하여 나라 안에 도배질되어 있다.

근래에 와서 많은 나라에서는 땅이름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식, 이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땅이름학(地名學)’이라는 분야까지 새로이 개척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땅이름에 지극히 무심해 왔고, 아직도 여기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근래에 와서 지하철 역 이름이나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의 마을 이름 또는 아파트단지의 이름을 가급적 옛 토박이 땅이름으로 되살려 붙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광복 반세기를 맞아, 199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일제찌꺼기 땅이름 청산’ 캠페인을 벌이는가 싶

더니 지금은 또 흐지부지하다

한마디로 정책부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창씨개명(創氏改名)당한 우리 국민들의 각자 성은 나라가 광복되면서 모두가 그 본성(本姓)을 되찾았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創地改名)’당한 우리 땅이름이 아직 그대로 광복 반세기가 훨씬 지나도록 신음하고 있다. 아니 우리 땅이름이 많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

서울의 문화자존을 지키려면, 서울을 서울답게 가꾸려면 일제 찌꺼기 땅이름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

진정코 그것도 어렵다면 쉬운 공원 이름이나 놀이터, 새로 생기는 학교 이름 같은 것에 옛 땅이름을 살리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그나마도 애오개, 여의나루, 까치산 같은 지하철 역이름은 많이 개선되었다.

땅이름의 종류와 수

땅이름에는 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의 도명과 같은 큰 지역명이 있는가 하면 ‘아우내(竝川: 충청남도 천안시)’ ‘장승백이’ 같은 좁은 지역명이 있다. 우리나라의 땅이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히 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산, 내, 바위, 골짜기, 모퉁이, 언덕, 고개(재)와 같은 자연적인 것이나 마을, 가람, 다리, 터널, 보, 비석 등의 인위적인 것이나 이름이 붙은 것은 모두 다 땅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땅이름은 붙이기 나름과 쓰기 나름으로 그 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의 동 이름만 보더라도 ‘필동’ ‘가회동’과 같은 법정동명(法定洞名)이 있는가 하면 ‘신림1동, 2동, 3동 …, 13동’, ‘성수2가 1동’ 등과 같은 행정동명(行政洞名)도 있다. 또 요 근래에 ‘재주소 부여사업’ 일환으로 ‘청솔길’ ‘방아다리길’ 같은 골목길 이름에 홀·짝수 번호를 얹어 붙인 땅이름이 더 생겨났다. 한편으로 단순히 ‘모래내’ ‘뚝섬’ ‘장승백이’ ‘말죽거리’와 같이 지도상에도 잘 표기되지 않은 채 불리지만 하는 땅이름도 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두고 보더라도 ‘한밭’과 ‘대전(大田)’, ‘복사골’과 ‘도화동(桃花洞)’, ‘별말’과 ‘평촌(坪村)’과 같

이 오래 전에 불리던 땅이름과 현재에 불리는 땅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곳도 아주 많다. ‘삼거리’ (천안) ‘털무시’ (기지지) ‘견넛밭’ ‘고개밭’ 과 같이 땅이름이라기에는 딱 잡아 말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다.

서울만 하더라도 ‘진고개’ ‘애오개’ ‘배오개(백고개, 배고개)’ ‘삼개’와 같이 이미 사람들의 입에서 거의 떠나 지금은 막연히 어디쯤으로만 가늠하고 있는 땅이름도 많다.

땅이름의 종류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한글학회에서 펴낸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땅이름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행정구역명 : 특별시, 광역시, 구, 출장소, 도(道), 시, 군, 읍, 동, 리

■ 자연 땅이름 : 곳(串, 반도), 나루, 내, 너설, 논, 늪, 들, 만, 모래톱, 모퉁이, 못, 바위, 버덩, 산, 산맥, 섬(군도 포함), 소, 숲, 악수터, 여울, 웅덩이, 진펄, 터(址), 자리, 폭포, 해수욕장, 해협

■ 인공 땅이름 : 고적, 공원, 광산, 굴(터널 포함), 길, 놀이터(유원지, 공원 포함), 농장, 능, 다리, 당, 동상, 독, 마을, 묘, 문, 물문(水門), 미륵(부처), 배수장, 보, 봇물(水路), 비석, 비행장, 빨래터, 수원지, 양수장, 양어장, 역, 소금밭(鹽田), 온천, 우물, 운동장, 장(시장), 저수지, 절, 정자, 철도, 탑

땅이름의 역사

우리나라에 땅이름이 등장한 것은 언제쯤일까.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기마민족으로 대륙 중원벌을 누비며 살기 시작하면서 땅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졌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의 땅이름은 어떤 모습이고, 얼마나 어디에 그것이 남아 있다고는 말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유사(三國遺事) 앞쪽에 보면, ‘아사달산(阿斯達山)’이란 땅이름이 먼저 나온다.

위서(魏書)에 이르되,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아사달(서경:西經)에는 무엽산(無葉山)이라 하며, 또는 백악(白岳)으로 백주(白州) 땅에 있다 하며 개성(開城) 동쪽에 있으니, 지금의 백악궁(白岳宮)이 그것이라 한다)에 도읍을 세우고 개국하니 이름이 조선이다’

따라서 사서에 기록된 땅이름으로는 ‘아사달산’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아사달’

의 ‘아사’는 옛말 ‘앗’ (‘일찍’ ‘새로’ 또는 ‘아침’의 뜻)에서 온 것이라 한다.

‘달’은 ‘땅’ 또는 ‘들’의 옛말이니, 결국 이 이름은 ‘아침의 땅’이란 뜻으로 ‘조선(朝鮮)’도 ‘아사달’의 한자식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사달’은 한자로 풀이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어서 삼국유사에는 ‘태백(太白)’ ‘신시(神市)’ ‘궁홀산(弓忽山)’ ‘금미달(今彌達)’ 등의 땅이름도 순수한 우리말은 ‘크다’나 ‘땅(나라)’의 뜻을 지닌 옛말이 한자로 표기된 것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터다.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 땅이름

신라(新羅)가 당(唐)나라와 연합하여 백제(百濟), 고구려(高句麗)를 멸하고, 신라에서는 ‘삼국 이전은 연대나 도읍지 등에 관해 생각지 않는다(年代國都不可考)’라는 금도(今度)에 따라 삼국시대 이후만을 말할 수 있었다.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의 잔재를 없애려 그들 문화를 흔적 없애는 정책을 폈던 탓이다.

삼국시대의 땅이름은 우리말에 한자를 빌린 이두(吏讀)나 향가식 문자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고구려의 ‘달기현’(達己縣:오늘의 고양시), 백제의 ‘두잉지현’(豆仍只縣:오늘의 충청남도 연기군), 신라의 ‘갑화랑곡현’(甲火良谷縣:오늘의 경상남도 기장) 등이 그것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 이르러 모든 땅이름을 당나라식으로 바꾸었다. 군현(郡縣)의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땅이름을 두 자리 음절로 고쳐 부르게 되어 땅이름에 큰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우리 땅이름은 다시 한번 크게 바뀐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지리지(地理志)가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새 땅이름이 많이 실려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조선이 건국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세종실록 지리지’가 간행되었는데, 이 때 또 한 차례의 땅이름의 개정이 있었다. 이 지리지에 실린 땅이름이 무려 8천 1백 29개에 이르

며, 별도로 간행된 ‘경상도 지리지’에는 7천 2백 2개의 땅이름이 실려져 있다.

양성지(梁誠之)의 ‘팔도지리지’, 노사신(盧思愼) 등의 ‘동국여지승람’ 및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에는 땅이름이 2만개 가량 실려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는 순수한 우리말 땅이름이 모두 한자로 표기되어 일반인들에 익히 불리던 ‘할미산’은 ‘노고산(老姑山)’, ‘모래내’는 ‘사천(沙川)’, ‘애오개’는 ‘아현(阿峴)’, ‘삼개’는 ‘마포(麻浦)’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 일제 강점기

19세기 말 일본은 대륙침략의 길잡이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국의 지형도를 간행코자 본격적인 땅이름 조사에 착수했다. 이때에 모아진 땅이름은 약 1백 80만개로서 상당수가 일본 참모본부에 의해 간행된 지도에 실렸다.

그러나 이때의 땅이름 조사는 불충분했고, 더욱이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땅이름으로 많이 변질시켰다. 이를테면, ‘중랑천(中梁川)’을 그들의 발음상으로 ‘랑(梁)’이라는 복모음 발음이 불가능하니까 ‘중랑천(中梁川) → 중랑천(中浪川)’으로 또 ‘합정동(蛤井洞)’의 ‘합(蛤)’이 글자가 어렵다고 하여 ‘합정동(蛤井洞) → 합정동(合井洞)’으로 그리고 지형도에는 일본글인 가다가나(片假名)를 병기했으므로 여기서 파생된 혼란이 극심했다. 오늘날 지도 등에 나타난 땅이름들이 ‘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지지’와 서로 다른 것이 많은 것은 지형도 간행 때 일본군이 저질러 놓은 결과다.

■ 광복 뒤

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광복된 뒤에는 일반 청소년이나 시·읍·면 직원이 차츰 한자 지식에서 멀어짐에 따라 부정확한 땅이름 발음과 오기(誤記)가 많아져서 땅이름의 혼용, 오용이 생기게 되었다. 이 같은 혼란은 군사 작전에도 큰 지장을 주기도 했다.

지도상의 땅이름과 현지의 땅이름이 서로 틀려 군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다. 또한 미군이 로마자 표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쿤 라이샤워(McCune - Reishawer)시스템에 따른 표기 때문에 미군과의 작전 수행에 큰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에 땅이름의 호칭과 로마자 표기의 통일을 위해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1958년에 국방부 산하에 지리연구소와 중앙지명제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시도, 시군, 읍면지명제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는 남한의 12만 4천 1백 98개 땅이름이 심의 채택되었다. 이를 토대로 신판 지형도의 편찬 간행이 끝나고 땅이름 제정사업은 일단락됨으로써, 그 기능은 새로 제정된 측량법에 흡수되었다. 그 뒤, 1995년 국가경쟁력기획단이 설치되면서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쳐 골목길 이름에 홀·짝수번호를 붙여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도 땅이름의 오기, 억지, 작명(作名) 등에 따른 혼란은 심각하므로 땅이름의 다듬기와 정리를 위한 작업은 꾸준히 연구하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가 상처낸 땅이름

■ 일제가 할킨 서울 땅이름

서울 곳곳에 땅이름이 상처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말 27대 순종 융희 4년(1910) 8월 29일 한·일 강제 합병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두고 서울 땅이름에 대대적인 칼질을 했다.

총독부는 그 해 10월 1일, 서울의 당시 이름인 ‘한성’을 없애 버렸다. 그리고는 경성부로 고쳐서 경기도에 붙여 버렸다. 이 무렵, 일본은 조선의 땅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이른바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착수하고 지형 측량, 지도 작성 등을 하면서 전국의 땅이름을 자기들 장부에 올려놓기 시작하였다. 이때 채집된 땅이름은 약 180만개로서 상당수가 일본제국 참모본부 간행의 지형도에 기입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지명 조사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고, 일본인들의 사용에 편리하게 변질된 것이 상당히 많았다. 또, 지형도에는 일본글인 가다가나를 병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된 혼란이 심했다.

1911년 4월, 일본은 경기도령 3호로 경성부 행정구역에 부와 면 제도를 도입하여 성안은 5부 36방으로 했는데, 성 밖은 방 대신 면으로 이름을 바꾸어서(예를 들면 ‘용산방’을 ‘용산면’으로) 성외 8면이라는 묘한 행정구역을 만들어 버렸다.

■ 거리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그런데, 그 뒤 1914년 4월 1일 일제는 부제 실시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우리 땅이름에 일대 개혁을 단행한다. 이때, 서울의 동이름들이 반 이상 뒤바뀌어 버렸다.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숨쉬어 온 무형문화재인 땅이름들을 차례로 자기를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린 것이다.

지금의 종로, 을지로에 해당하는 길에는 일본식으로 '정목(丁目)'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정목'이란 말은 자기네 본국의 큰 도시 거리에 붙여온 거리 이름으로 지금 우리의 '1가, 2가...'와 같은 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거리에는 '1정목, 2정목...' 식의 왜식 지명이 자리를 잡는다.

거리 이름도 자기들 멋대로 지었다. 황금정(을지로), 서대문정(신문로), 원정(원효로), 죽점정(충정로), 의주동(의주로), 남대문동(남대문로), 한강동(한강로), 태평동(태평로) 등. 지금의 을지로는 예부터 땅이 질어서 '구리개(굴개)'라 불러 오면서 한자로 '동현(銅峴)'이라 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구리(銅)가 자기들 말로 황금(黃金)이 된다고 해서 황금정(黃金町:고가네마치)이란 엉뚱한 이름을 붙여 버린 것이다.

종로 일대에는 조선 초부터 벼슬아치들이 많이 살던 곳이어서 마을이 많았다. 땅이름도 그 마을만큼이나 많았다. 일제는 이 많은 마을들을 마구 통폐합해서 기존의 땅이름들을 거의 부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지금의 관수동, 동숭동, 공평동, 권농동, 예지동, 낙원동, 원남동, 원서동 같은 동이름은 그 곳에 있던 토박이 땅이름들을 뭉개 놓고 그들이 새로 만들어 붙인 것이다.

기존의 지명을 다른 글자로 바꿔 놓거나 마음대로 붙여 놓기도 했다. 건평방(堅平坊)의 '평(平)'자를 '지(志)'자로 바꾸어 견지동(堅志洞)으로 했고, 계생동(桂生洞)을 줄여서 계동(桂洞)으로 해 놓았다

■ 일본인 거주 지역은 더욱 심해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을지로 근처나 용산 일대에는 일본식 지명으로 거의 갈아 버렸다.

중구의 신정(新町:묵정동), 임정(林町:산림동), 옥정(旭町:회현동), 수정(壽町:주자동), 삼각정(三角町:삼각동), 대화정(大和町:필동), 초음정(初音町:오장동), 장교정(長橋町:장교동), 장곡천정(長谷川町:소공동), 용산구의 경정

(京町:문배동), 영정(榮町:신계동), 원정(元町), 암근정(岩根町:청암동), 산수정(山手町:산천동), 청수정(清水町:신창동), 금정(錦町:효창동), 삼판통(三坂通:후암동), 강기정(岡崎町:갈월동), 청엽정(靑葉町:청파동) 등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오시마(大島)라는 일본인의 이름을 따서 대도정(大島町:용문동)으로 정한 것이라든가 일본군의 영문(營門)이 있는 곳이라 해서 연병정(鍊兵町:남영동)이라 한 것 등은 이 땅을 자기들의 영원한 터로 삼고 땅이름에까지도 자기들의 얼을 심고자 하는 저의를 뚜렷이 드러낸 증거들이다.

여러 동이 합쳐진 경우, 그 중의 두 동의 이름에서만 한 글자씩 따서 행정지명을 만들어 원래의 지명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곳도 많다. 이런 현상은 마을이 오밀조밀 모여 있던 종로구 일대에서 특히 심했다. 그 중의 몇만 예를 들어 보자.

합치기 전의 동이름 중엔 우리말이 그 바탕이었던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수송동의 송현(松峴), 옥인동의 옥동(玉洞), 운니동의 이동(泥洞), 인사동의 사동(寺洞) 등은 '솔고개' '옥골' '진골' '절골' 등이 원래 이름이었다.

■ 광복 후도 원래의 땅이름 못 찾아

광복 이후 일제가 붙인 땅이름은 많이 고쳐졌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옛날에 덩굴풀이 많아 만초천(蔓草川)이라고 불렸던, 서울 서부 지역의 한강 지류가 아직도 일제가 붙인 옥천(旭川)이란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가 하면, 일본인의 별장이 있었던 한강가의 흑석동 일부는 당시 일본인 별장 이름 그대로 명수대(明水臺)로 통하고 있다. 이곳의 학교 이름, 성당 이름까지도 '명수대'이다. 중국인 사신을 접대하던 태평관이 있었던 곳이어서 일제 때 태평동이라고 붙여졌던 곳은 '통(通)'을 '노(路)'자로만 바꾼채 '태평로'란 이름을 달고 서울 중앙의 거리에서 뽐내고(?) 있다.

쌀 창고가 있어서 일제 때 북미창정과 남미창정이라고 불렸던, 남대문 근처의 동네는 해방 후에 왜식 동명을 없앤다고 북창동, 남창동이라고 고쳐 짓기는 했지만, 일제가 지은 이름에서 겨우 쌀미(米)자만 빼고 정한 것이어서 개운치가 않다

서울의 구(區) 이름 중 하나인 은평(恩平)도 일제의 잔재이

다. 은평은 일제가 1911년 경기도령으로 경성부의 성외 8면을 정할 때 당시 이 지역의 연은방(延恩坊)과 상평방(常平坊)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것이다.

한강 가운데의 섬을 아직도 중지도로 부르는 것도 문제다. 중지도는 지명이라기보다는 ‘가운데의 섬’이란 뜻의 일본어이다. 일제는 한강의 섬들을 자기 멋대로 이름을 짓거나 고쳤는데, 그 중 몇 개의 섬은 이름 아닌 이름인 ‘중지도’로 불려왔고 지도에도 그렇게 표기했다. 지면 관계로 서울의 예만 들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광복 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제 잔재의 땅이름을 원래대로 돌려 놓거나 우리 식으로 바꿔 놓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식 땅이름이 버젓이 여기저기에 자리하고 있다.

■ 되찾아야 할 원래의 땅이름

일제 잔재의 땅이름은 지금도 계속 지도에도 표기되고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다.

그러나, 광복 60년 가깝도록 일본인이 남겨놓은 땅이름이 그대로 남아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음은 겨레의 큰 수치요, 후세들에게도 주체성 잃은 조상이라는 창피스러운 평가를 받을 것이다. 특히, 수도 서울에 일본식 동이름이 30% 이상이나 되는데도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우리 땅에는 우리 식의 땅이름이 자리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식 이름은 이제라도 손을 대서 우리 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물론, 일본식 땅이름을 당장 모두 고칠 때 따르는 혼란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다. 당장 손대기가 어렵다면 우선 고쳐도 별 문제가 없는 것부터 하나둘씩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내(川)나 산, 섬의 이름과 같은 자연 지명은 당장 고쳐도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길이름(路名)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區)나 동(洞)의 이름이다. 이것은 이미 사람들의 입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갑작스럽게 지명 변경을 단행할 경우, 그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땅이름은 분구(分區)나 분동(分洞)이 될 때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생기거나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시설이 마련될 때마다 그 이름으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많은 지하철 역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역이 생길 것인데, 역의 이름을 옛 땅이름이나 원래의 땅 이름을 찾아 붙여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 길도 옛 땅이름을 찾아 붙여 줄 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앞으로도 이 땅에는 국토나 지역개발에 따라 새로운 도시, 공원, 아파트, 지하철역, 길 등 많은 시설물들이 생기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가급적이면 우리 조상들의 얼이 밴 무형유산인, 사라져간 땅이름들을 찾아서 후세에 전하며 겨레의 혼을 바르게 이어가야 한다.

‘서울’이라는 땅이름

‘서울’이라는 땅이름은 수부(首府), 으뜸, 수도(首都)를 뜻하는 보통명사다. 이를테면, ‘가라(야)국의 서울이 김해(金海)이고, 신라의 서울이 경주, 백제의 서울이 부여(扶餘)이며 중국의 서울은 베이징(北京)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고유명사(땅이름)이지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찰해보면, 경(京)의 뜻을 지닌 수도의 보통명사로의 ‘경(京) 자 풀이 또한 ‘서울 경(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타난 신라의 도읍지는 ‘사로’나 ‘서라벌’이라 하고 백제는 ‘사부리’나 ‘소부리’라 하고 고려는 ‘송악’, 후고구려는 ‘철원’이라 하였을지라도 그 땅이름이 지닌 본디 뜻은 모두 ‘서울’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서울’로 통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도읍지가 어디가 되었든, 그 곳은 수부, 으뜸 도시라는 뜻으로 ‘서울’이었다.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에도 ‘경(京)을 ‘서라벌’ ‘서벌’ ‘세벌’이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글 _ 이흥환 | 국학연구소 이사장

위축되어 가는 문화원사업

참여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혁신'이란 이름의 개혁에 의한 싱그러움을 추구하고 있다. 혁신은 정치나 행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추구해 그 바람은 문화예술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그 일차적인 작업이 이미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진흥원의 체제개편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입법추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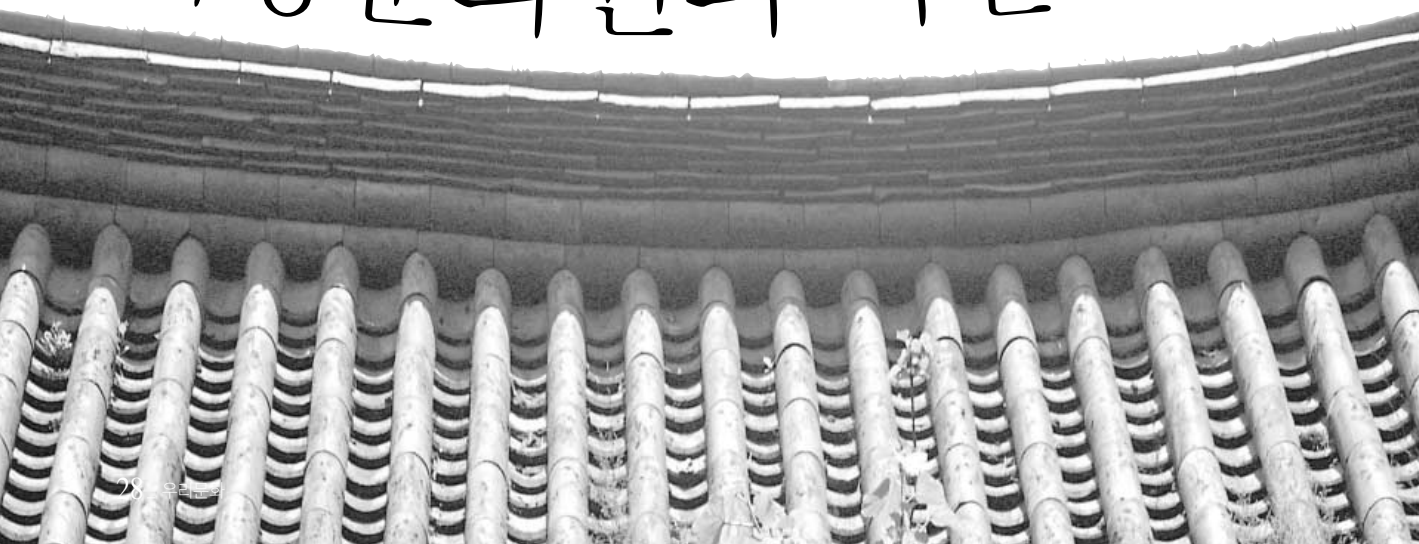
이 같은 참여정부의 의지는 「창의 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에도 잘 나타나있다. 특히 정부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그동안 지역정체성의 파수꾼을 자처해 온 지방문화원은 싫건 좋건 혁신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왜냐 하면 지방문화원진흥법은 바로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이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방문화원들은 '지역 고유문화의 문화진흥'을 골간으로 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수집, 연구, 보존, 교육, 보급 및 행사를 그 주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60년대 이후 지역의 예술은 물론, 청소년의 사회교육, 충효사상 고취,

노인공경과 도덕재건, 환경보호, 문화행사, 관광진흥, 문화유산보호, 사회체육 등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활동해 왔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다원화 되어가면서 예술, 관광, 청소년, 노인, 환경, 생활체육 등을 담당하는 전문단체들이 개별법의 지원 아래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일부 군부에 까지 예총과 민예총이 발족했는가 하면 향교와 유도회, 향토문화연구 동호회 및 청소년, 복지·환경단체들이 지방문화원의 기존 역능을 분담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초기에 지방문화원이 벌였던 청소년 글짓기, 그림그리기, 한자교육, 충효교육, 예절교육 등은 예술단체와 향교 등에서 맡고 환경운동이나 생활체육, 노인 위안잔치 등의 사업도 문화원사업영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름인지 94년 새로 제정한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법제2조) 이라고 지방문화원을 규정 해놓고 '그 사업(법제8조)에서 지역 고유문화, 또는 지역 전통문화라는 한정개념을 동원해 그 사업의 범위를 위축시켜 놓았다.

지방문화원의 혁신



문화의 개념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듯이 문화사업을 맡고 있는 지방문화원사업 또한 다양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문화의 개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 정의한 문화란 예술장르와 출판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지방문화원은 특수 장르에서 다루지 않는 생활문화나 전통문화뿐이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식

지난해 9월 목포대학교 고석규 교수는 전국 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부가 주최한 제16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지방자치지역 내 문화단체에 대한 인식을 언급한 바 있다. (동 심포지엄자료 72쪽 참조) 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27대 추진과제 중에서 지역단체는 동호회, 전문예술단체, 전문문화예술단체 등이 주로 언급되고 지방문화원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과제17 '지역문화역량제고' 뿐이다. 이 항목에는

- 1) 지방문화원의 운영체제 혁신유도 (신규 전문인력의 공개채용)
- 2) 우수 문화원 선정 지원
- 3) 지역 문예단체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진흥을 언급하고 있다.

세부 추진 과제에서도 지역문화원기능의 강화가 적시 되어 있다. 정부의 「창의 한국」의 추진은 총체적으로 볼 때 이 보고서 작성자는 분권 및 참여, 자율을 위한 지역문화혁신의 주체로 지방문화원을 활용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석규 교수는 현 정부 창의 〈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입안자가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문화진흥을 사고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화원 밖에서 보는 문화원에 대한 인식의 현실이다. 50년대 시작된 지역문화진흥운동의 중추에서 많은 업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1세기 문화비전의 중심에 설 수 없게 되었는가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문화역량의 자체 반성

나이가 혁신의 척도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마치 세대간 괴리가 엄청난 것처럼 386세대 중심론이 시세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지역의 정체성이나 전통의 규명, 보전, 교육을 담당하는 향토문화활동을 위해서는 지역 내 원로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때문인지 전국에 지방문화원장의 연령을 보면 광복 전에 태어난 원장이 172명으로 78%에 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식민지 시절에 태어난 문화원장 중 광복 당시 6세 이상의 나이에 있던 수가 117명으로 55%이다. 물론 일제 초등학교 교육을 1~2년 이상 받고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전쟁을 기억하는 문화원장수는 70명 선에 이른다. 이에 견주어 혁신적인 활동기에 있다는 386세대에 속하는 문화원장은 인천연수문화원장, 광주 북구문화원장 등 도시지역 2~3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연령의 단체장이 주류를 이룬 것은 단체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성원의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

물론 문화원이 발족할 당시나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행정부의 경상비 보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지역 문화진흥에 대한 열정만으로 뜻있는 동지들이 모여 추렴돈이나 지역 유지들의 후원금으로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가운데 전통에 능자나 향토사학자 등이 주로 참여하게 된 나머지 전통예능이나 향토사가 낡은 젊은이들의 소외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부정적 시각으로 보자면 애써 지키고 키워온 지방문화원의 기득권층이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 내 문화동호인을 영입하지 않은 폐쇄적인 운영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지방문화원 정관 준칙 제7조를 보면 회원은 가입서를 낸 거주자 중에서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조항이 특수계층의 독점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94년 이후 원장 1차 연임한정으로 다소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

만 여전히 회원가입제한에 이사회의 승인이 독소조항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다. 제44차 정기총회에서 다룬 문화원정관준칙에서는 이 점을 크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오늘날 문화원 회원수가 1백 명 미만인 문화원일수록 이같은 불평을 듣는 것 같다. 민주사회에서 참여자 수의 많고 적음은 단체의 비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단체장과 의회의원이 결정되는 마당에 민간단체의 회원수는 그 응집력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그 단체의 위상을 결정한다. 이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나 권력과 관계없이 참여회원수의 과다는 문화원 활성화에도 절대적인 함수관계를 갖는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80년대 초반까지도 지역 문화활동의 독점적 위치에 있던 문화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족한 유사단체나 전문화를 표방한 단체에 일부 사업을 침탈당하면서 점차 위축되어 왔다. 더 나아가 견제와 질시를 받게 된 요인이 폐쇄적인 회원가입제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후계인력 양성의 미흡이다. 재정적인 원인도 꼽을 수 있겠으나 문화원 업무의 중심에서 활동하여야 할 사무직의 급료가 봉사자 사례수준에 그쳐 정년퇴직자가 아닌 젊은이들로써는 다른 생활방편이 있을 때만 참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 인력의 양성 없이 초창기부터 참여해온 희생적인 문화운동가들을 주축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문화 권력층이라는 비난까지 받기도 했다. 드디어 정부보조에 의한 공개채용 사무국장제가 도입되었다. 문화원활동을 생계 방편을 걱정 않는 노인층이 주도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은 지역문화진흥활동이 안정적 생활방편이 될 수 없도록 방치해온 행정의 책임이 크다.

이런 가운데 신생 지역사회운동단체들은 각 부처가 새로운 관계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경쟁적으로 들러리 민간단체들을 육성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들 신생단체들일수록 기존의 문화원보다 유리한 재정적 보조를 해주면서 육성해 그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문화원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급기야는 사회단체 풀 보조 제도가 실시되고 지역사회 문화활동의 근간을 이뤄왔던 지방문화원 보조가 신생사회 단체보다 적은 액수로 후퇴했다.

이 같은 사태의 진전으로 생각해 낸 참여정부의 정책이 지역문화 단체의 통합과 연계인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지방분권화의 근간은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신장에 있지만 문화원 자체에 중추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창의 한국」의 비전에서 살핀 바 와 같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총체적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정치·행정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 병존하고 있어서 대안으로 생각한 방안이 이들 단체를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연합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시키자는 착상이다. 이 법은 지방문화원을 한 장으로 다뤄 문화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지역 내 모든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운영, 문예진흥위원회와 기금조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시도하고 있다. 스스로 창의적 발전을 지체해온 문화원은 세 번째 밖으로부터의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문화원이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실적과 전통을 이어 받아 역동성을 갖는 길은 스스로 개혁하는 길 밖에 없다.

혁신을 위한 구조적 정비

새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시책침투를 위한 관 주도 민간조직을 계속해 왔다. 자유당시절의 반공청년단이 그 시발이라 할 수 있다. 5·16 혁명 후 탄생시킨 것이 재건국민운동본부이며 유신 정권 때 발족시킨 것이 새마을 운동본부이다.



전두환정권 때 사회정화운동이나 노태우정권 때 바르게살기운동도 같은 맥락의 단체이다. 김대중정권은 제이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지만 실패로 끝나고 그 말기에는 기왕의 문화원 조직을 활용할 구상으로 사무국장 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김영삼정권은 민주화 열기가 거셌던 때라 기존 관변단체들이 정권의 들러리로 활동했다는 일부 비판 때문에 관변단체의 창설을 유보한 가운데 환경단체, 시민연대, 민예총 등 자생단체들이 탄생했다. 노무현정권은 참여, 분권, 혁신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주로 90년대 자생민간운동단체와 친연성을 가지고 문화예술분야에서 민예총계열 인맥을 많이 기용하는가 하면 관 주도 혁신위원회를 조직화하고 지방예술단체는 진흥위원회로 통합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총은 건국전후 좌익예술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우익예술인들이 결속한 탄생인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화원만은 어떤 정권과도 인연이 없이 탄생한 순수문화운동단체라 할 수 있다. 물론 엄격히 따지자면 초창기 문화원도 미국공보원 유인물 배포를 주 임무로 한 때가 있었고 60년대 중반이후에는 정부 홍보에 주력한 때도 있어서 민족주의나 반미자주파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원이 주도하는 문화와 예술문화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문화원이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압에 의해 혁신하기보다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구조혁신과 회원확대

오늘날 전국 문화원 회원수는 10만 명가량(04.12.31일 기준)으로 문화원 평균 450명 내외이며 전 국민의 0.22% 수준이다. 문화원이 문화원 가입회원만을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내 동참주민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남의 경우 문화원 평균회원수는 702명이다. 이에 비해 문화원 활동이 용이한 도시지역 일부 문화원들은 회원수가 1백 명 미만으로 정보보조금은 직원인건비 및 경상비 충당과 간행물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회원수만 많을 뿐 회비 납부회원이 10%내외인 부실한 문화원들도 있다. 민주화사회에서 수의 많고 적은은 단체의 위상에 큰 영향을 준다. 주민 수혜 활동이 문화원의 주된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 없지만 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지 않는 한 지역의 기득권 문화권력 집단이란 비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적위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가져온다. 동참 회원수가 많을 때 당국도 문화원 활동을 백안시 할 수가 없다. 지금 문화원은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시·도지부의 법률상 지위를 확보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위 문화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존재가치와 지역사회에서의 역량과 기능을 인정받는다면 반사적으로 연합회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연합회 정관 제2조에 규정한 연합회사무소 외에 시·도분사무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분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진다. 법률로 중앙회나 연합회 육성을 규정하는 것은 본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지만 연합회와 시도지부는 단위 문화원들이 연합회 공생 투쟁하는 역능을 맡아주어야 한다. 연합회는 문광부 위탁 업무 하달기구이기보다 단위 문화원들의 의견을 결집해 정부에 상달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능동적인 사업계획과 상호연계

문화원은 초창기에 시책홍보 민간기구로서 존재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언론매체가 발달하면서 문화원은 이용가치가 떨어졌고 재정능력마저 없는 탓으로 시대에 따라 행정이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안주해 왔다. 이 때문에 법적 인격은 갖췄으나 행정의 시너마냥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얹혀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80년대 중반이후 문화원이 지역고유문화의 조사 연구와 전승에 역점을 두면서 획일적으로 주는 향토사료수집비와 간행사업에 치중했으나 중·장기 계획이 없어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단편적인 문집류 영인이나 사료발췌본, 관내 향토사가의 개인간행물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문화예술 관련 책자간행, 행사 대행, 회원지 간행 등으로 연명해 왔다.

참여정부의 시책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맞도록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도록 분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액 경상비와 정액문화활동비로 만족하면서 지역 유지로 민간단체장 행세는 그만 하라는 말이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원장과 자치단체장 간의 친소관계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다수의 열성적인 지역민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문화원이라면 오히려 단체장을 설득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문화원의 위상을 바꿔야겠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첫 번째로 회원 가입을 자유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원이 능동적으로 정체성 규명과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사업 계획을 세워 주민공감대를 유도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지방문화원 간의 협력 하에 지역문화진흥에 인색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지역언론기관과 유대를 강화하면

가능한 길이 있다.

젊은 정보화 기능 인력의 협력을 받아 지역문화예술 정보센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향토사 자료센터를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록보존소 기능을 대행해야 한다. 문화원 안에 생활 문화에 관련된 여러 동아리를 육성하고 부녀회 및 면·동분원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이원화를 구상할 필요도 있다. 향토사에 식견을 가진 원로들을 향토사 연구와 정리 및 교육 요원화하고 젊은 층을 과감히 이사로 영입해 문화활동과 새 문화 수용의 첨병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점은 70년대 중반,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소멸되고 만 시·군 단위 문화재보호협회기능을 문화원이 주도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문화원들은 지역 문화사나 향토사 발굴 및 간행사업에는 많은 공적을 쌓아 왔지만 향토문화재를 보호하는 운동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젊은 회원들로 하여금 향토문화재나 자료애호운동을 환경단체만큼 주도케하고 이 운동을 각급 학교에 파급시킨다면 그 어떤 지역운동단체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재보호운동은 지역관광요원 양성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한 걸음 나아가 문화원 산하에 향토문화관광안내소를 둘 수도 있다. 문화원이 스스로 창의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부시책을 잘 활용한다면 지방분권화시대의 첨병단체로서 중흥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글_ 김정호 | 진도문화원장
무등일보 편집국장, 전남도립농업박물관장, 문광부 21세기정책위원 역임.

21세기의 가족

- 가족, 대화 하는가? 대화 막는가?
- “글과 사진 아닌 사랑과 행복 담아요”
- 강지원 변호사 등 명사출연 ‘가족애’ 한마당

서로 대화하는가?

자식 얼굴 한번 보기 어렵다고 푸념하는 부모들이 많다. 품안의 자식이자 크면 다 소용없다고 투덜대는 부모들도 허다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빗어지는 서운함이란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녀를 마치 전유물처럼 생각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 천지는 만물을 나아주되 기대지 않는다는 성현의 말을 새겨두는 부모는 피붙이란 혈연의 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지속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얹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족관계 역시 인간관계라는 엄연한 사실을 터득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에 서서 서로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든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기회는 아주 자연스러워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녀가 자유롭고 마음 편히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부모 쪽에서 슬기롭게 배려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억지로 말하게 강요하는 부모야말로 자녀와의 사이에 철의 장벽을 쌓고 자녀와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짓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가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가족의 풍습이 아니다. 특히 부자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소중한 가정 생활은 없다고 본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의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서로 노력한 결과에 속한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버릇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커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 있게 마련인 세대 차이를 서로 극복하는 통로가 유지된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모 쪽에서 먼저 이해하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아버지가 되어야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지 한 쪽의 생각을 수용하고 다른 쪽의 생각을 배척하는 경우는 결코 대화로 이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대화의 성질을 잘 아는 부모는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도 않는다. 말을 강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을 먹이자고 억지로 말을 강가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이 결정할 뿐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리려면 서로 돕고 고민하는 인간관계라 생각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서로 조언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로 임하면 왜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를 거부할 것인가?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생각을 주입하여 지시하려는 부모에게 어느 자녀가 대화를 나누고 싶을 것인가. 결국 부모의 권위주의가 자녀의 심정을 상실하게 하는 셈이다. 권위적인 부모는 항상 자녀로부터 곁돌 수밖에 없을

21세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대화 하는가? 대화 막는가?

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버릇은 유치원 때부터 그 터를 닦아두어야 누리는 복이기 때문이다. 그런 복을 누리자면 부모 쪽에서 일찍부터 공을 들여야 하는 셈이다.

부모 자식 사이에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녀를 독립된 한 인간으로 인정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본다. 우리네 가정은 오랫동안 가부장적 풍속에 젖어 온 탓으로 부부 사이의 대화도 어렵다고 한다. 대화는 서로 동등한 처지에서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지 지시를 주고받는 일방통로에서는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가족 모두 한 인간으로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동의 문화의식이 필요한 셈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는 아버지를 속이기 쉽다고 생각하는 편이 정직하다. 이제는 부모 자녀 사이에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부모편에서 열린 마음을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녀의 뜻을 살피는 부모

자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주인공임에 틀림없다. 상대의 뜻을 알면 넘지 못할 산이란 없

다 하지 않는가. 뜻이란 마음이 가는 바다. 마음 두는 쪽이 어딘지 알면 방향을 잃을 위험이 없을 것이고 마음을 두는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면 늪에 빠질 위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자녀의 뜻을 살필 줄 아는 부모라면 자녀의 항해를 돕는 나침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항상 부모 심정은 자녀가 화롯가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혹시나 자녀가 잘못될 세라 돌다리도 두들겨 본 다음 건너가게 하려는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미처 모르는 은혜다. 자녀의 뜻을 잘 살피는 부모는 가정을 항상 명랑하게 이끌어 가는 지혜가 남다른 편이다.

내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당산 아래서 해준 적이 있었다. “나아가고 싶거든 물러 설 일을 생각할 것이고, 빼앗고 싶거든 줄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며, 이기고 싶거든 질 일을 먼저 생각해라.” 이는 뜻을 두거나 세우는 데 지나치지 말라 함이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을 잊지 말도록 할아버지가 손자의 뜻을 살피려 했던 말씀이었다.

한나절 부는 돌개바람은 없고 종일 쏟아지는 소나기는 없다. 남보다 더 멀리 보자고 발꿈치를 들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노자가 말한 것 역시 뜻을 항상 잘 살피 겸허하고 겸손하라 함이다. 현명한 부모는 겸허한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살핀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의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서로 노력한 결과에 속한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모 쪽에서 먼저 이해하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아버지가 되어야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만일 자녀가 어긋나거나 허튼 짓을 범하면 냉정하게 꾸짖되 망신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참을 줄 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뜻을 살피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뜻을 살피는 부모는 항상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바른 향로를 잡기 위하여 나침반을 살피도록 충고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인생을 향로로 비유한 경우는 허다하다. 향로에는 나침반이 필수품이다. 그 나침반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터득하면 곧장 철없는 사람에서 벗어난다. 자녀가 철들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은 자녀 스스로 제 마음속에 있는 나침반을 살피 스스로 향로를 정해 순항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모는 자녀의 뜻을 살피는 데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덤보지 말라는 속담을 헤아리게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나무를 만나거든 순리대로 올라가라고 충고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는 행복하다. 자녀가 행복을 누리는 가정보다 더 좋은 보금자리는 없다. 그런 보금자리에서 자란 자녀야말로 제 마음속에 훌륭한 나침반을 마련하게 마련이다. 이는 곧 부모의 공덕으로 자녀

가 바람직하게 자라는 복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

어떤 젊은이가 가장 자유롭고 떳떳하며 당당할까? 자신이 존경하는 부모를 둔 젊은이일 게다. 돈이 많다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세를 해서 명성이 자자하다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고관이 되었다해서 존경받는 것도 아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순리를 어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존경받는 법이다. 자녀가 진실로 부모를 존경하는 경우 그 자녀는 행복하고 그 부모는 훌륭하다고 할 것이다.

더럽고 추한 일로 입에 오르내리는 부모를 둔 자녀가 제일 불행하다. 부정부패로 쇠고랑을 찬 집의 자녀는 제 부모를 숨기고 산다. 비록 돈이 많아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이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말하는 것뿐이다. 정신적으로는 하루도 마음 편히 못사는 속사정은 바로 감옥 같고 지옥 같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쓰고 산다해도 가족 중에 하나가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다면 나머지 가족이 마음이 편하겠는가 말이다.

줄부의 자녀는 줄부로 되기 쉽다. 줄부는 돈밖에 몰라 돈

이제는 부모가 군림하고 자녀가 종속되는 세상은 끝나버린 셈이다. 효도라 해서 효도할 자녀는 이제 없다고 보아도 된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효성을 갖도록 하자면 먼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면 다 된다고 설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설치는 부모를 보고 자란 그 자녀가 무엇을 부모로부터 배울 것인가? 돈 자랑하는 버릇만 배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젊어서부터 돈벌기 힘든 줄 모르고 살다 보면 저절로 도심에 걸려들게 마련이다. 남의 담을 넘어가 흠치는 것만 도심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도둑의 심보란 게으름이다. 게을러 빠진 자녀는 제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른다.

존경은 주경과 같은 말이다. 경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이 존경이요 주경이다. 부모가 선하고 어질어 후덕하면 자녀는 아무런 부담없이 제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유명인사가 되어 남들이 존경한다는 부모를 둔 자녀는 오히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엇나가는 짓을 범하면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지만 올바른 젊은이라면 비빌 언덕을 찾기보다 스스로 자유롭게 자립할 수 있는 자기영역을 추구하는 법이다.

가족은 서로 다 사랑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서로 이해한 나머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여간 부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믿고 따르는 가정인 까닭이다. 우리 부모님은 착하고 어질고 성실하며 부지

런하다고 믿는 자녀는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말에도 부자 집에서 불효자 나고 가난한 집에서 효자 난다고 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야 진실한 효가 자녀의 마음에서 샘솟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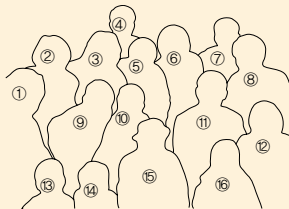
부모를 존경해라, 부모를 모셔라, 부모를 받들어라, 이런 등등의 말로 구호를 외치면서 효의 전통을 살리자고 해서 효도하는 전통이 되살아 날 리 없다. 이미 이제는 부모가 군림하고 자녀가 종속되는 세상은 끝나버린 셈이다. 효도라 해서 효도할 자녀는 이제 없다고 보아도 된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효성을 갖도록 하자면 먼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리 없고 어질지 않고서는 존경받기 어렵다. 후덕해야 존경받는다는 함은 결국 선하고 어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는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다.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선하고 착한 마음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일이다.



글 _ 윤재근

193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동성고등학교 영어교사, 계간 《문화비평》, 월간 《현대문학》의 편집인 겸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명예 교수,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시론》 《장자 철학 우회》(전3권) 《먼길을 가려는 사람은 신발을 고쳐 신는다》 등 다수.



①조용기(1세 손) ②최경춘(2세 손) ③최경순(2세 손) ④유기석(2세 손) ⑤유지연(3세 손) ⑥송해(2세 손) ⑦하상소(2세 손)
⑧경락(2세 손) ⑨유지은(3세 손) ⑩유진(3세 손) ⑪최종수(1세 손) ⑫유지영(3세 손) ⑬하준혁(3세 손) ⑭최동준(3세 손)
⑮일채(1대 조) ⑯최동은(3세 손)

가족신문 대상 받은 최종수 과천문화원장 家

“글과 사진 아닌 사랑과 행복 담아요”

최종수 과천문화원장 가족들이 만드는 가족신문 <응달말>이 1월 14일 경기도 청소년 종합 상담실과 경기 문화재단이 주최한 '가족 문화 콘텐츠 공모전'에서 가족신문 부문 대상인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다른 참여작에 비해 체계적인 틀과 가족 모두의 소식을 다양하게 담아내 가족역사가 끈끈하게 배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응달말>. 심사위원 모두 감탄하며 한권씩 가져갔다는데...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공간 <응달말>과 가족들을 만났다.

세대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문화와 효 문화를 세우는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족신문. 인터넷 등에 소개되는 가족신문을 보면 대부분 부모와 자녀 한 가정 중심이다. 또 시작은 잘 했지만 아쉽게도 몇 회 못가 중도에 접은 경우도 꽤 있었다. 초등학교 방학숙제로 시작된 가족신문은 이제 핵가족시대 가족문화 만들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가족신문 만들기의 참 모습은 얼마나 품 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많은 가족이 참여하며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창간 6주년 ... 4대의 이야기 담은 가족신문

1999년 창간호를 내고 1년에 한두 번씩 꾸준히 발간해 2004년 8호까지 낸 <응달말>은 남다른 가족신문이다.

창간 6주년이란 '역사' 뿐만 아니라 4대에 걸친 가족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신문이란 점에서. 올해 97세인 어머니 박일채 여사를 모시고 사는 최중수 원장(65세) 부부를 비롯 이미 결혼해 분가한 1남 2녀의 자녀와 손자손녀 등 4대가 함께 모여 만드는 가족신문이기 때문이다.

증조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훈훈한 4대의 이야기와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는 <응달말>은 평소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중수 원장의 제안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과천향토사 연구회원 중 한분의 가족신문 <만경택네>를 접하고 비로소 가족들의 생활기록을 통하여 지난 일을 반

성하면서 밑거름으로 삼고 현재를 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며 아이들에게는 모범을 보이면서 가족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1세손 최중수 - 창간사 중에서)

두 딸·며느리가 돌아가며 편집장 맡아

제안은 최중수 원장이 했

지만 두 딸과 며느리가 돌아가며 편집장을 맡아 알아서 만들도록 하고 있다.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잘 만들려다보니 부담스러워 갈등도 있었다. 원고수집도 쉽지 않아 창간을 발의한 지 4개월여가 지난 1999년 5월 20쪽의 창간호를 낼 수 있었다고. 엄마들이 편집하는 동안 고만고만한 아이들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었고, 성적표 받을 때보다 더 떨리는 뿌듯함과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더 열심히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엮어진 창간호였다.

발행부수는 100부에서 시작해 2호부터 200부로, 지면도 조금조금 늘려 2004년 8호는 64쪽으로 분량도 내용도 두툼해졌다. 겉모양새도 내용 구성도 짜임새 있는 가족신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1971년 겨울 응달말 행랑채 사랑마루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표지에 실은 제6호 가족신문

창간호 (1999년)



응달말

“햇빛이 잘 비치지 않아 그늘진 곳, 마을” 국어사전의 풀이다. 우리 가족이 살아온 터전 조선조 초기부터 살아온 응달말(응달마을)이다. 양지가 아닌 음지에 몸을 두는 겸손함이나 양지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음지라는 뜻으로 풀이하여 본다. 응달말은 막계에서 제일 먼저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대공원 건설로 떠나왔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변화였다. 제자 : 최경춘(작은 딸) _ 창간호 표지의 글

행복이 넘치며
복이 많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위로 자르려 해도 잘라지지 않고
정기 많은 가정
(창간호에 실린 3세손 지영이의 5행시)



▲ KBS 도전 골든벨(2004. 12. 5 방송)에 출연해 효·가족사랑·가족신문에 대해 이야기한 응달말 가족.

모이고 이야기하는 화목의 끈으로

가족신문 <응달말>은 최중수 원장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와 의미일까? 일단 모이는 횟수가 많아졌다. 2002 월드컵 때도 <응달말>에 실어야 한다며 모두 모여 대한민국을 외

쳤고, 2003년에는 할머니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통영으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다. 가족신문이 좋은 구실이 되어 자주 모인다고 유기석(45세), 하상소(39세) 두 사위들은 입을 모은다.

가족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글 솜씨에 모두들 놀랐고,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손주들도 알게 되었다. 또 태풍이 쓸고 간 것처럼 힘들었던 남편의 심정도, 가사 일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지쳐 자신만의 시간에 묵마른 아내의 가슴도 볼 수 있었다.

“<응달말>은 크게는 할머니부터 부모님과 우리 남매 가족 모두를 이어주는 화목의 끈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남편과 아이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대화의 끈이기도 합니다.”

큰딸 최경순(42세) 씨는 또 “고맙다, 수고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마음은 있어도 예전에는 잘 표현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건네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응달말> 5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은 최동준, 하준혁 두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 <응달말>이 두터워지는 까닭도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과 이야기를 좀더 많이 담고 싶기 때문이다. 창간호에 ‘행복한 가정’ 오행시로 히트작을 낸 초등학교 5학년 유지연이 8호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중국여행기를 실었으니... <응달말>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향하는 가족문화, 가족역사의 건강한 끈이



▶ 1대 박일채 노모를 모시고 있는 1세손 최중수 원장 부부와 2세손, 3세손들의 모습(왼쪽부터). 이 몇장의 가족 사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 2003년 할머니 생신기념 가족들의 통영여행.

되고 있었다.

친지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응달말>은 7년째 혼자서는 외출을 못하시는 할머니께도 기쁨이란다. “친척들이 보고 할머니 안부를 자주 묻고 찾아오니깐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사촌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아들 최경락(40세) 씨는 뿌듯해 한다.

어른 섬기고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고자

“산소를 치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장마가 끝나면 다시 산소를 찾아뵙고 잡초를 뽑아야겠으며, 이층 방에 보관되어 있는 어머니의 수의를 꺼내어 바람을 쏘이게 하고 좀이 먹지 않았는지 살펴봐야겠다.” (1세손 며느리 조용기-제

8호 ‘윤달’ 중에서)

특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원고를 내는 분은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부인이고 어머니인 조용기(65세) 여사다. 그리고 <응달말> 5년사의 진정한 공로자인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갈등하고 투정부리는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늘 기다려 주시고 조용히 이끌어 주시는 기둥”이라고 며느리 김승하(36세) 씨는 말한다.

“자라면서 부모님이 언성 높이시는 모습을 한번도 본 일이 없다”는 작은 딸 최경춘(37세) 씨는 나이 들어서야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큰 복이며, 그 복은 부모님의 끝없는 노력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단다.

이처럼 100년 가까운 세대차를 훌쩍 뛰어넘어 가족이란 이름으로 공감을 나누는 장이자 어른을 섬기고 생활을 반성하게 하는 <응달말>.

<응달말>에 가보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증조할머니께 공손히 인사드리는 다섯살 박이 손자가 있었다. 손주들과의 공감을 위해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할머니,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손녀딸과 함께 골든 벨 울리기에 도전하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거동이 힘든 할머니의 요강을 비우고 목욕해드리는 자식들이 있었다.

글 _ 김계숙 기자

최종수 원장이 이야기하는 효와 가족문화

“孝는 실천, 운동입니다”

“효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천문화원 최종수 원장은 과천에서 500년 뿌리 내린 전주(全州) 최씨의 종손이다. 전주 최씨는 거슬러 올라가면 효자 최사립을 비롯해 과천 시흥향교와 과천시로 부터 효부상을 받은 최 원장의 부인 조유희 씨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효자와 열녀를 배출한 효의 가문으로 뿌리 깊다. 1977년 서울대공원 개발로 조상 선영을 용인으로 이전했지만 부친부터 고조부까지 신주를 집안에 모시고 조상 섬김을 잊지 않는 최 원장. 올해 소망은 가족의 건강. 누구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한다. “가족은 삶의 기본입니다. 사회생활도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기본, 품성을 닦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한번 불안해진 정서는 쉽게 고치기 힘듭니다.”

대가족제가 허물어져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것이 없어진 오늘.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강한 정서와 가족문화, 효 문화를 물려주려면 어른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다행히 가족신문이 이런 뜻을 실천하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 “역사와 전통 위에서 새로운 문화의 싹도 자랄 수 있다”는 최종수 원장의 말에서 후대를 생각하는 어른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봄맞이 문화가족 큰잔치

강지원 변호사 · 이시형 정신과 의사 ·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명사출연 ‘가족애’ 한마당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정경이 그때 그 시절 빛바랜 추억의 사진으로 남아버린 요즘.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 홀로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오늘, 가족의 의미와 어른 섬기는 효의 중요성마저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봐야 할 때,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발 벗고 나서 큰 잔치 마당을 벌였다.

명사들과 함께 벌이는 가족 마당극

가족의 의미 찾기 열린 한마당. 전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하는 봄맞이 문화가족 큰잔치가 2월 19일(토)과 20일(일)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무료관람으로 열린다.

‘봄맞이 문화가족 큰 잔치’의 1부 공연은 마당극 <우리 사랑 아무도 못 말려>.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이 두 집안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형 마당극으로 각색했다.

<우리 사랑은...>은 젊은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큰 축으로 두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족·세대·계층·학력·지역간 갈등 등 사회적 모순과 함께 정치·경제적 실상을 풍자적으로 꼬집어 일침을 가한다. 우리네 특유의 입담과 익살, 풍자가 가슴 속 묵은 체증을 통쾌하게 풀어주고 한 바탕 웃음잔치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잔치의 큰 특징은 사회각계의 명사들이 마당극에 출연해 함께 문화잔치판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변학도의 생일날> 등에서 무대경험을 쌓은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해 이시형 정신과 의사,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서영길 TU미디어 대표이사, 심갑보 삼익LMS(주) 대표이사,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원 극단 ‘원’ 대표 등이 주요 배역을 맡게 된다.

마당극에 이어 2부 특별초청공연으로 ‘작은 거인 김수철 콘서트’를 마련했다. 록 가수에서 국악작곡가로, 우리 가락과 서양 리듬을 접목하는 등 우리 가락을 사랑하는 가수 김수철 씨의 무대 또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하며 몸짓하는 열린 마음의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이번 잔치의 총 기획을 맡은 양정순(국내1호 여성예술감독, 극단 길라잡이 대표) 씨는 “문화는 소통의 힘으로 대립과 갈등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이념이 아니라 문화”라고 강조한다.

‘봄맞이 문화가족 큰 잔치’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사랑 그리고 통일로 가는 마당, 우리네 대동굿처럼 왁자하고 즐거운 축제판으로 기획했다. 문화가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그야말로 ‘문화가족’이 늘어날 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반목과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마련된 것이다.

“사회각계 명사들이 참여해 만든 작품으로 가족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우리사회의 가치관, 윤리관 등과 관련한 대사회적 발언의 통로이며 마당입니다. 아무쪼록 가족 단위로 구경 올 수 있는 계기를 주는 뜻 깊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과 가족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 감독을 맡은 우리나라 마당극 연출의 대가 임진택 씨는 또 “가족은 남이 아니라는 말은 곧 나와 한 몸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한다. “내 생명의 옛 모습이자 미래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명의 본성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은 심오한 존재”라고.



▲ 마당극 <우리 사랑 아무도 못말려>의 주인공 해님(오른쪽·권혁중 분)과 달님(왼쪽·김주경 분)

“사회각계 명사들이 참여해 만든 작품으로 가족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 윤리관 등과 관련한 대사회적 발언의 통로이며 마당입니다.”

마당극

“우리 사랑 아무도 못말려”

미리보기

정극 보다 더 큰 감동의 해학과 풍자 한마당

마당극 <우리 사랑 아무도 못 말려>는 <로미오와 줄리엣> 원전설화인 <피라무스와 티스베>라는 작품을 우리네 상황에 맞게 각색한 것.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땅 논산에도 ‘먹정바위설화’라는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시대적 공간은 삼국시대. 그러나 마당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대사는 현 실정에 맞게 풀어내어 시공을 초월한다.

주인공 해님과 달님의 사랑 구도는 정극의 요소지만 복잡한 복선은 없다. 전통연희의 형식을 넣어 노래와 춤, 해학과 사회풍자를 한 바탕 풀어낸다.

“반복과 과장으로 표현되는 말과 동작의 유희에 우리 악기가 어울립니다. 평소 익숙하게 보고 들던 동작과 소리들이라 부담 없이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당극을 처음 보는 관객들을 위해 도움말을 전하는 연출자 임



창규(극단 금시조 상임연출) 씨는 “오히려 정극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마당극의 매력”이라 덧붙인다.

도깨비와 함께 하는 볼거리 느낄거리 많은 세상

현실 문제와 주제를 던져주는 몫은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 도



Romeo & Juliet 2005 Seoul !

을유년 정월, 로미오와 줄리엣이 대한민국 서울 마당판에 뒀다? 셰익스피어 식 음울한 비극적 종말을 벗어던지고 걸쭉한 익살과 풍자, 통쾌한 웃음을 가득 안은 우리네 마당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는지 공연 한달을 앞두고 사회 저명인사들이 한창 연습중인 대학로 연습실을 들여다봤다.



산신으로 분장한 권용태 회장과 임현영 소장, 강지원 변호사 등 명사들이 연기에 몰입하고 있다.

깨비와 신령들이 말한다. 특히 심술꾸러기 귀여운 친구 도깨비들이 판을 풀며 자연스레 동화 나라로 끌어들이는다. 관객들이 보는 가운데 천 한 장과 장대 두 개로 강을 만들고, 해님과 달님을 갈라놓는 반목과 불신의 상징 담장도 세워진다.

호랑이, 뽕나무 등 자연물도 많이 나온다. 인간간의 만남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교류하며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대금, 피리, 장고, 북, 해금, 아쟁, 징, 팽과리로 구성된 풍물패가 마당 한편에서 실제 연주하는 모습이나 살풀이와 탈춤 사위, 삼국시대 의상을 보는 즐거움도 쏙쏙하다. 볼거리 느낄거리가 많은 마당극 <우리 사랑...>, 남녀노소 가족이 함께 즐기며 공감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연이다.

반목과 불신을 견어낸 해님과 달님의 사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세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의 해님과 달님은 양가의 반목과 불신을 극복하고 현세에서 사랑의 결실을 이룬다. 죽음이란 부정적 요소를 우리네 해학은 새로운 탄생으로 반전시키며 대통합과 화해, 현세에서의 사랑의 결실로 마무리하는데...

반전의 열쇠는 2월 19일과 20일 서울 열린극장 창동에서 가족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남겨둔다.

사 사랑을 하려면 요 요렇게 하단다
요 내 사랑 변치 말자 굳게굳게 다진 사랑
어한 둥둥 내 사랑
둥다가 둥다가 덩기둥당에 내 사랑
꽃과 내비 너웁너웁 춤을 추고
우리네 사 사랑은 아이기가아 두둥실 종용시고

<공연문의 02-931-0993, 4>

글 _ 김계숙 기자





탈과 사람
서울 삼청동길에 있는 세계장신구박물관. 기기묘묘
한 탈 아래 앉아있는 사람이 발가벗은 채 사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박물관 소개 84P)

양구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박수근 미술관



강원도 양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경은 무엇일까?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산,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위, 그리고 푸른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양구에는 사단이 2개나 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양구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하겠지만, 이렇듯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양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대체로 이런 삭막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삭막한 영상들 말고 전혀 다른 상징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할 듯하다. 바로 박수근 미술관이다. 2002년 10월에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3년째를 맞고 있는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관'은 양구의 대표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양구의 이미지까지 바뀌는 부드러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 화가와 소박한 꿈이 만나다

화가 박수근은 1914년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정림리에서 태어나 10대의 대부분을 양구에서 보냈다. 대가가 된 예술가들이 으레 그렇듯이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던 그에게 화가가 되게끔 한 결정적인 계기는 밀레였다. 박수근은 12세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밀레의 순수한 영혼에 빠져들어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양구는 박수근의 몸을 만든 곳이기도 하지만, 화가로서의 박수근의 영혼을 키워낸 곳으로서 더욱 의미 있는 고장이다. 박수근의 그림 수업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이루어졌다. 수없이 스케치했던 나무, 아기를 업은 채 일하는 여인, 나물 캐는 아낙, 삶의 애환이 녹아든 빨래터 등 그 모든 흔적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그의 고향 양구이다.

박수근 미술관의 건립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인 화가로 추앙받는 박수근을 기리기 위해 1997년 '박수근화백기념사업기본계획'이 발간되었고, 1998년에는 강원도의 열 선양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00년에는 박수근화백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같은 해에 박수근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근 화백을 기리는 일이 단순히 유가족들의 몫이거나 기념 사업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수근을 기리는 일은, 양구군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술관 건립에 합의하고 설계공모를 거친 뒤 1년여의 공사과정을 거쳐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다. 관과 민이 만나 이룬 사업이 된 셈이다. 올해는 특히 박수근 서거 40주기를 맞는 해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박수근의 정신을 담은 미술관은 우선 그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한다. 다른 미술관처럼 곧바로 정문을 마주하지 않고 돌로 지은 둥근 벽을 따라 에돌아가게 되어 있다. 마치 화가를 만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당부처럼 읽힌다. 박수근을 박수근이게 하는 독특한 마티에르를 상징하는 돌벽 또한 화가의 그림 세계를 살피는 섬세한 공정이다.

미술관은 독특한 건축 구조를 자랑하는데, 전시장은 나선형으로 흘러 자연스레 뒷산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에는 박수근 부부의 묘에 이르는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미술관을 한바퀴 돌며 그림과 자연, 자연과 인공의 자연스러운 만남에 대해 탄성을 자아낸다. 이렇듯 독특한 건축 구조는 많은 건축학도들의 참관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미술관은 최근 소장하게 된 유화 3점을 비롯해 박수근의 작품 105점과 다른 화가들의 작품 150여 점, 박수근의 편지, 엽서를 포함한 유품 200여 점 등 총 45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개관 전에는 불과 65점으로 시작했지만, 2년 새에 수백여 점의 작품을 마련했다. 물론, 박수근의 대표작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화가 박수근의 지난했던 생애와 아름다운 예술혼을 느끼기에 충분한 유품들이 아쉬움을 달래준다.

미술관이 돋보이는 또 한 이유는, 미술관을 단순히 그림을 보유한 죽은 공간으로 두지 않고 화가 박수근의 생과사를 연결시키려 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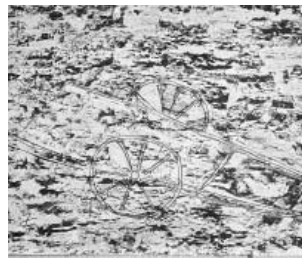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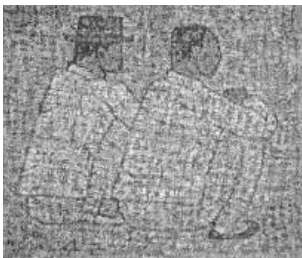
2004년에 박수근 부부의 묘를 이장해 미술관의 일부로 포함시킨 것은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박수근의 숨결을 호흡하고, 전시관을 한 바퀴 돌아 뒷동산에 오르게 된다. 언덕 위에는 미술관과 주변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작은 정자가 있고, 정자를 따라 산책로를 걸으면 박수근 묘에 다다르게 된다. 예술가의 작품뿐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색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미술관 옆으로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 여유와 사색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관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군립’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고 있지만, 양구군청과 미술관의 관계는 종속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다. 유홍준 명예관장(현 문화재청장)을 대신해 실질적인 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권성아 학예연구사는 군청의 예산과 인력 지원 등에 대

해 비교적 만족해했다.

“지원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립이다 보니 행정적인 부분과 예산 집행에서는



군청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지만, 프로그램이나 내용 등 전시에 관련된 부분에는 미술관에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권성아 학예연구사의 말처럼 실제로 군청과 미술관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과 미술관 직원들 사이의 신뢰와 관심도 각별한 편이다. 무엇보다 지자체 장인 임경순 양구 군수가 박수근 미술관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경순 군수는 “박수근 미술관 덕분에 오늘날 양구군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미술관에 애정이 깊다. “양구군민 전체는 박수근 미술관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근이라는 이름에 애정을 갖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양구군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군수의 말처럼 미술관은 행복한 지원을 받고 있다.

임경순 군수는 또한 앞으로의 박수근 미술관의 미래에 대해 ‘양구만의 박수근 미술관이 아닌 한국의 대표 미술관’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뚜렷한 전망을 밝혔다. “박수근 미술관이 양구에 있지만 지역 접근성이 더 쉬워지는 올해를 시작으로 강원도의 유일한 미술관으로서 발돋움 하려 합니다. 지역 미술문화 진흥에 적으나마 힘

을 보태고, 나아가 '한국의 박수근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박수근 미술관에 쏟는 각계각층의 관심은 각별하다. 미술관이 세워지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다. 명예관장인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미술계 관련 인사들은 미술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양구군청, 양구 지역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미술관 운영위원회'는 끊임없이 박수근 미술관에 내실을 다지도록 신경을 쓰는 한 편, 외부에 박수근 미술관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자처했다.

임태용 양구군청 문화관광계장은 2년 만에 박수근 미술관이 널리 알려지게 된 까닭으로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꼽는다. “유홍준 명예관장을 비롯한 미술관 자문위원들이 속해있는 모임이나 맡고 있는 직책에서 저마다 미술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박수근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70% 이상이 외지인입니다.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던 양구를 박수근의 도시로 바꾼 데는 그 관람객들의 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 자문위원들과 관람객들이 저마다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지요.”

임경순 양구 군수는 박수근 미술관이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흡족해했다. “양구는 문화사업자체가 전무한 지역이었고, 군사지역의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양구가 박수근이라는 큰 작가를 가졌다는 것이 행운이겠지요. 그를 기반으로 하여 미술관이 생겨났으며 이는 앞으로 양구의 모든 문화사업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도시 보다는 박수근의 고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임경순 군수의 말처럼 박수근 미술관은 자연스럽게 양구라는 도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지역특색 살린 모범 사례로 꼽혀

박수근 미술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특색과 지자체의 문화 정책이 잘 맞물린 사업이라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각 지역에서는 문화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형편이다. 저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자체들의 문화사업 인식 수준



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비슷한 축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제대로 된 현지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벌이는 문화 사업들이 오히려 문화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면에서 박수근 미술관은 지역의 성공적인 문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근 미술관은 한 해 동안 2만 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미술관으로 성장했다. 양구 군민 전체가 2만 명이 조금 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관람객을 끌어 모을 수 있었을까? 권성아 학예연구사는 박수근 미술관이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게 된 이유에 대해 “양구만의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처음 미술관을 짓는다고 할 때는 외부 사람들처럼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거리도 너무 멀고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올까 우려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순수관람객, 화가 박수근이 좋아서 스스로 찾아오는 미술 인구나. 둘째는 동해와 설악산을 찾는 여행객들. 여행을 가거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는 작은 여행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셋째는 양구에서 군복무 중인 군인의 면회객들이다. 양구에는 사단이 2개가 있어 적지 않은 군인 인구가 살고 있다. 면회 오는 부모님과 친지들과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박수근 미술관은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문화교육이 되고, 군인들의 심성교육에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군 수송 트럭을 타고 몰려와 미술관을 한 바퀴 돌며 관람하는 진풍경은 양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일 것이다.

이렇듯 박수근 미술관은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운영으로 지리적인 제약 등을 벗고 성공적인 지역 문화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나주 시장이 직접 방문해 미술관을 둘러보고 갔다. 제주도 공무원들도 미술관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 둘러보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갔다. 비단 미술관뿐 아니라 여타의 지역 문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박수근 미술관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권성아 학예연구사는 박수근 미술관의 성공 요인에 대해 ‘색깔의 분명함’을 들었다. 양구를 사랑한 화가의 생과 예술을 연결시켜 다른 곳에는 없는 양구만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들의 문화 사업에 대해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문화관이든,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색깔과 특색 없이 시작한 사업의 결과는 볼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것보다,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 하는가이겠지요.”

지속적인 자원과 알찬 운영 뒷받침

문화 사업에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과, 사업시작 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문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 면에서 양구군이 박수근 미술관에 쏟는 관심과 애정은 남다르다. 이미 2005년 운영계획이 촘촘히 세워져있다.

올해는 특히 박수근 40주기를 맞는 해이다. 미술관의 2005년 계획도 40주기에 맞춰져있다. 우선 전시 부분에서는 5월에서 7월 사이 ‘박수근 40주기 기념전-박수근, 그와 노닐다’ (가제)를 기획중이고, 부대 행사로 40주기 기념 학술대회와 기념공연,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특히 군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박수근 마을’이라 이름 붙이는 예술인촌 건립이다. 임태용 문화예술계장에 따르면 1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어 예술인 마을을 건설 중이다. “미술관 옆 빈 터에 작업공방과 전시관들을 지을 계획입니다. 젊은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예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 등 현존하는 예술인 마을을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이 완성되면 박수근 미술관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문화 공간이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미술관의 질 높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청이 작품 구입비로 정해놓은 예산은 10억 원이다. 박수근의 작품이 워낙 고가인 것을 감안할 때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단 구입이 가능한 선에서 계속 작품을 보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뜻있는 이들로 하여금 작품 기증을 더욱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작품 구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미술관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임경순 양구 군수는 문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문화 사업은 직접적이며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화 사업이란 100을 투자해 당장 100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여타 사업과는 분명 성격이 다른 것이 문화 사업입니다. 즉 단기간 내 어떤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화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뤄야 합니다. 또한 문화 사업은 건물 하나 지어 놓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지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화 사업은, 끊임없는 변화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사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3월 31일까지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근의 작품들’이란 제목의 전시회가 열린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수근의 작품들을 모두 선 보이는 전시회다. 만물생동의 기운 가득한 봄날, 박수근을 만나는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양구와 박수근 미술관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요즘 신세대들 간에 ‘싸이질 한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구세대들에게는 도통 요령부득의 신조어같은 이 말은 신세대들간에는 ‘야, 밥먹으러 가자.’는 말 처럼이나 일상적으로 쓰인다.

얼마전 무심코 TV를 보다가 어느 광고에 눈이 뒹겼다. ‘싸이월드는 아이스크림이다.’ 라는 CF를 보면서 저게 뭘까? 하며 지나쳤다. 귀여운 여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어릴적 우리 엄마는 친구와 사이좋게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을 두개씩 사주셨다는 내용의 그 CF는 ‘내게 싸이월드는 우정을 이어주는 아이스크림같은 존재다’ 라는 카피로 끝을 맺었다. 요즘의 CF는 하도 기발하고 튀는 것이 많아 중년층 이상의 세대에선 무슨 아이템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많다. 저게 무슨 광고일까 하고 궁금해진 나는 곧 싸이월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했고 가입회비 같은 것이 전혀 들지 않으며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무료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글썽? 하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싸이월드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이 글을 쓰는 시점도 그것을 시작한지 불과 열흘이다.

그 뿐이 아니다. 여기 저기 들여다 보며 다니다가 난 ‘노티즌(notizen)이란 클럽까지 하나 만들었다. 신세대가 아닌 구세대끼리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생활수상같은 것을 올려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뜻에서였다. 의외로 요즘은 오십대 이상의 나같은 연배들이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서로 즐기고 있어서 며칠만에 열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을 하였고 그들과 안부를 주고 받으며 좋은 사진, 에세이, 시 등을 올리고 읽으면서 재미있어 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그 문화권(이동통신을 포함해서 이메일, 홈페이지, 메신저 등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밖에 있는 사십대 이상의 구세대들에게는 인터넷이란 별개의 세상이며 남의 일일 뿐이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할줄만 알아도 대단한 수준에 속했었다. 디지털카메라의 기능까지 갖춘 신형의 휴대폰을 가졌어도 걸고, 받는 것 이상의 기능을 활용할 엄두를 못 내었으며 자녀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와도 열어볼 수가 없었다. 현대판 문맹(文盲)인 셈이다.

그러나 IT분야는 날로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문맹의 상태로 계속 지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지금은 종강을 했지만 종강 즈음의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나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가끔 들러 글 좀 남기라고 했더니 환호성이 터

건전하고 사이좋은 문화,
인터넷이 앞장선다



지고 정말로 나의 홈페이지에는 제자들의 안부가 담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신세대의 아들 딸과 조카들과, 제자들과 사통팔달로, 그리고 중형무진으로 젊음을 구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손자들과는 못하랴. 중국이니, 뉴질랜드, 브라질 등에 나가있는 친구나 조카들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하기까지 하다.

소위 Genration gap도 웹상에서는 덜 한 것 같다. 그들은 잔소리만 해대는, 점잖을 빼며 권위만을 앞세우는, 구세대들이 끼어드는 것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도 염치없이 궁둥이를 디미는 이에게 마치 전철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자리를 내 주듯 섯 앞을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이라. 또래끼리 사랑방을 만들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취미를 나눌 수 있고 어설픈 시며, 생활수상 등을 올려 돌려가며 읽으면서 공감하며 즐거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황혼을 더욱 곱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별세계인 것이다.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에 도전해 보자.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린다. 세상을 여러개 갖는다는 건 신바람 나는 일이다.



글 _ 김삼진 | 한성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나라 잃은 설움 '목포의 눈물'에 담아

소리문화인 음악엔 인생이 담겨있다. 노랫말 속에 삶이 녹아있고 멜로디는 희로애락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래엔 저마다 사연이 있고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에피소드와 비화들이 많다. 제목, 노랫말, 작곡, 작사, 취입에 이르기까지 재미난 뒷얘기들도 적잖다.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특히 그렇다. <서울의 찬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목포의 눈물> 등 노래제목에 지명이 나오고 그 고장얘기들이 가사로 꿰어져 나온다. 저마다의 지명과 지역을 소재로 사연과 추억을 담은 노래들의 뒤안길을 따라가 본다. <편집자>

(1절)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에 새아씨 아롱 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설움

(2절)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님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안으니
님 그리 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3절)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다 옛 상처가 새로워지는가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많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 목포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목포항의 갯내음 물씬 나는 노래 <목포의 눈물>이 있는 까닭이다.

<목포의 눈물>은 단순히 호남인들의 애창곡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전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로 굳건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국민가요가 된 이 노래는 노년층 기성세대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서정적인 대중가요로도 유명하다. 호남사람들의 프로야구 응원석에선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흥겨운 술자리에서도 '사공의 뱃노래...' 곡조가 펼쳐진다.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일보사 공모로 탄생
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여자가수 이난영 노래로 4분의 2박자 트로트풍인 이 노래는 가사 소절마다 의미 있고 새겨볼 만한 내용들로 이어진다. 특히 가수 이난영 특유의 목소리와 우리의 한이 서린 가사로 지금까지 널리 애창되는 목포소재 대중가요다.

노래가 만들어진 시대배경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3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에선

우리 나라 가요엔 전국 각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많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가 그렇다. 부산의 <이별의 부산정거장>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 갈매기>, 인천의 <인천은 항구다>, 마산의 <내고향 마산향> <가고파> <이별 없는 마산향>, 삼천포의 <비내리는 삼천포> 등 찾아보면



노래가사 현상공모가 있었다. 조선일보사가 OK 레코드사와 공동으로 전국 6대 도시의 '애향가' 가사를 공모한 것이다. 애향가 모집엔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 방송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 신문사와 레코드사 행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공모결과 3천여 편의 응모작 중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로 시작되는 무명시인 문일석 씨의 원고(제목=목포의 노래)가 당선작으로 뽑혔다. 우리 겨레의 끊임없는 이별과 애달픈 정한을 담은 내용으로 시대상황과 맞아떨어져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끈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가사가 일제통치자들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노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상공모결과가 발표된 후 제목을 '목포의 눈물'로 바꾼 가사에 작곡가 손목인 씨의 '갈매기 항구'란 곡이 붙여져 이듬해인 1935년 <목포의 눈물>이 탄생했다.

일제가 시비를 건 내용은 2절 가사부분. '삼백년 원한 품은 [처음 가사는 삼백연(三栢淵) 원안풍(願安風)은]의 구절이 말썽이 돼 작사가, 작곡가가

왜경에 불려가서 문초를 당했다.

작사·작곡가는 일제 경찰들에게 순수한 동기로 만든 노래며 가사에 다른 숨은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원한 품은'을 '원안풍은'으로 고쳐 취입해야만 했다.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의 대상이 일본이라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삼백연 원안풍'으로 가사를 손질, 삼백연 바람이 목포항 앞 3개의 섬으로 이뤄진 삼학도를 거쳐 유달산 노적봉 쪽으로 분다는 뜻으로 만들어 검열을 통과했다.

가사 말썽 빚어 작사·작곡가 日警에 문초 당해

비록 가사를 고치긴 했으나 사실 이 부문의 숨은 뜻은 우리 민족의 한을 애기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이슈들에 빚대어 표현한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쓰러질 때까지의 3백년 한을 나타냈다.

임진왜란 때 유달산에서 지혜로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을 2절에서 '님'으로 표현한 이 노래는



◀유달산에 세워진 '목포의 눈물' 기념비와 가수 이난영

3절에 가서 한이 더욱 깊어진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사회상을 깊은 밤으로,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 나라를 한 점의 조각달에 비유해 국가 잃은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어 마지막엔 한을 승화시켜 항구에 맺은 절개, 즉 오기로 돼있는 님과의 약속과 나라를 되찾는 구국의 믿음을 목포의 사랑으로 그려 마무리했다.

민족의 영가로서 손색없는 <목포의 눈물>은 일본의 침략과 대동아공영을 부르짖었던 일제통치자들을 찬양하는 풍의 노래 <복지만리> 등과는 대조적이다.

노래가 선보이자 레코드가게마다 매진이었고 <목포의 눈물>을 구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노래 덕분에 다방 주인들도 돈벼락에 신바람이 났다. 노래를 듣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축음기가 있는 다방으로 몰려들었고 신청곡이 줄을 이어 틀었던 곡을 수십 번 반복해서 틀어댔다.

극장 주인집 아이 돌보며 흥얼거리다 눈에 띄어

1916년 목포시 양동에서 이남순(李南順) 씨의 장녀로 태어난 이난영은 노래 속의 한처럼 어려운 삶과 슬한 곡절을 겪은 가수다. 목포공립보통학교

(현재 목포북교초등학교)를 4학년까지 다니다 집안이 어려워 중도 자퇴한 그녀는 엄마와 제주도생활을 시작했다. 극장주인집 아이를 돌보면서 흥얼거리는 이난영의 노래소리를 높이 평가한 집주인이 그를 막간가수로 활동하게 했다. 영화나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삼천리가극단장의 권유를 받아 특별단원으로 채용된 게 1932년. 그녀가 16살 되던 해였다. 그 후 우연히 OK레코드사 이철사장의 눈에 띄어 작곡가 손목인 씨에게 소개돼 본격 노래를 부르게 됐다.

1933년 8월 태평레코드사에서 <지나간 옛 꿈> <시드니 청춘>을 발표, 가수로 정식데뷔 했다. 그 해 10월 <향수>, 11월 <불사조>를 취입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1934년 <신 강남> <밤의 언덕을 넘어>를 내놔다. 이어 신민요 <봄맞이> <오대강 타령>으로 정상급가수로 떠오르면서 <목포의 눈물>로 폭발적 인기를 얻은 것이다. 1937년 <목포의 눈물> 속편 격인 <해조곡>을 불러 다시 한번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1942년 항구노래의 완결판이자 그녀의 오빠(이봉룡)가 작곡한 <목포는 항구다>로 대대적인 인기가수가 되기도 했다.

49세 때인 1965년 4월 11일 알코올중독으로 세상을 등진 그는 4남 3녀의 자녀를 뒀다. 모두 미국에서 가수로 활발하게 뛰고 있어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손목인 씨 장례 때 후배들 <… 눈물>부르며 애도
가수 이난영을 민족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은 <목포의 눈물>엔 또 하나 재미난 기록이 있다. 목포 유달산 달선각 아래 세워져 있는 노래비가 국내 최초란 점이다. 이 비는 1969년 한 목포시민이 6백만 원을 기탁해 건립됐다. 목포에서 매년 봄 가을 가수 이난영을 추모하기 위해 열리는 목포가요제 때 <목포의 눈물>이 시그널음악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노래를 작곡한 진주출신 손목인 선생은 1999년 1월 9일 일본 동경 시내 차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6세의 일기로 작고했다. 가요협회장으로 고인의 장례식이 열린 그 달 15일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현대아산병원에선 후배음악인들이 그의 유품인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목포의 눈물>을 부르며 애도했다. 손 씨는 경기도 성남시 삼성공원묘원에 안장됐다. 한편 <목포의 눈물>은 1998년 10월 22일~11월 15일 서울시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노래의 선율을 토속적이고 사실적 대사로 풀어낸 연극작품으로 무대에 올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목포시가 이난영기념관 건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2005년 1월 12일 목포시장이 갑자기 별세했다는 뉴스가 그날 밤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는 <목포의 눈물> 노래소리와 함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기자가수 _ 왕성상

필자는 남인수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기자가수다. 경남 마산출신으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와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온 그는 1970년대 말부터 신문기자생활을 해오면서 '이별없는 마산항' '마산포 순정' 등을 취입했다.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소속(등록번호 856번)으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 wss4044@hanmail.net

전국문화원연합회 제44차 정기총회 개최

이사에 이선재(마포) 김경석(무주) 박차생(진해)원장

감사에 윤수옥 원장(장흥)

전국문화원연합회는 2005년 1월 31일 (월)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중구 필동 소재 한국의 집에서 165명의 지방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환경이 열악한 중에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선 문화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원장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더욱 분발해서 향토문화 발전에 힘써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1호의안으로 상정된 2004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과 제2호의안으로 상정된 200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이사 결원 3명과 감사 결원 1명에 대해 각각 보선했다. 이사에 이선재 원장(마포), 김경석 원장(무주), 박차생 원장(진해)이, 그리고 감사에는 윤수옥 원장(장흥)이 선임됐다.

또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오고갔다. 이 가운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70명의 대의원을 회원 중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총회원의 30% 이내로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비율화 시켰는가 하면 임원선임에 있어서는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삼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번에 새로이 임원선출에 관한 총회 운영규정안이 제정되었는데 임원선임의 경우 총회 소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주도록 했다.

그 외에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인사규정이 제정됐다.



이선재 마포문화원장, 첫 성인초등학교 설립 검정고시 안보고도 졸업장 딸 수 있어

이선재 마포문화원장이 오는 3월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성인 초등학교를 개교한다.

서울 서부교육청은 최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양원초등학교가 국내 최초로 초등학교 학력인정 성인 초등학교로 인가받아 오는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성인이 초등학교 학력을 얻으려면 학원이나 독학을 통해 1년에 한차례 실시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이같은 과정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학 박사이자 일성여중고교장을 맡고 있는 이선재 마포문화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다녀 졸

업하기만 하면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를 개교기로 결정을 내리고 정식 설립 신청을 냈다. 이 최초의 성인초등학교의 이름은 양원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으로 1년 3학기제다. 1년에 수업일수 270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주·야간 각각 4개 학급으로 구성되며 한 학급당 정원은 35명. 수업료는 당분간 월 8만 원가량.

한편 양원초등학교 설립자 이선재 문화원장은 “주부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양원초교가 평생교육을 위한 첫 단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가락 얼쑤패’ 칠곡지역서 풍물대중화 사업

우리가락 얼쑤패가 칠곡지역에서 풍물대중화 사업을 펼친다.

우리가락 얼쑤패는 지난 89년 3월 대구새로운청년회 소모임으로 출발, 16년여 동안 활동하다 대구새로운청년회가 해산하면서 독립, 지난해 말 활동 무대를 중구 동인동에서 북구 읍내동 칠곡초등학교 맞은편으로 이전했다.

얼쑤패는 우리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풍물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맞이 얼쑤 풍물교실”을 개최했다. 풍물교실을 통해 북 기본 장단과 잊혀가는 전래놀이인 자치기, 팽이놀이 등을 가르쳐 호응을 얻었다.

얼쑤패는 세시 풍속을 되살리기 위해 정월 대보름 지신밧기도 할 예정이며 단오 행사 준비도 추진중이다. 또 3월부터 매월 1차례 어린이집,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전래 동요, 민요, 장단 배우기 등을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풍물놀이 연수”를 개설, 교육 현장에 풍물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무동무씨동무” 행사도 다음달부터 매달 한 차례 열어 칠곡 지역에 있는 생협, 동화모임, 여성회 등 단체들이 전래 놀이, 먹을거리, 좋은 책 등을 함께 공유하는 장도 제공할 계획이다. (매일신문)

춘천시 ‘강촌에 살고 싶네’ 노래비 건립

국민적 대중가요인 강촌에 살고 싶네"의 발상지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노래비가 건립된다.

최근 춘천시에 따르면 이 지역 단체인 강촌문화마당과 함께 각각 3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북한강 강변에 노래비를 건립하고 버드나무를 심는 등 노래비 공원 조성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 나훈아 트로트 가요제와 강촌문화제 등 이벤트를 추진해 강촌을 관광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강촌에 살고 싶네’는 6.25전쟁이후 춘천에서 사업을 하던 작사가故 김설강 선생이 저녁 무렵 서울로 가던중 산기슭

에 자리잡은 강촌역의 풍경에 매료돼 배를 타고 들어가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느낀 소회를 노래로 만들면서 탄생했다.

김 선생은 “해가지면 뽕새가 구슬프게 우는 밤…”으로 시작되는 2절을 도착한 날 저녁에 작사하고 1절 “날이 새면 물새들이 시름없이 날고… 버드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파…”는 다음날 아침 버드나무가 많은 강변의 모습을 보고 만들게 됐다고 생전에 밝힌 바 있다.

지난 1965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작사 김설강, 작곡 김학송)는 나훈아씨가 불러 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경남은행 8권짜리 향토문화책자 선집 발간

경남은행이 지난 10여년 동안 발간해 온 지역 문화 관련 책자 8권을 한 묶음의 선집으로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남은행은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매년 1권씩 모두 8권의 향토문화책자를 발간해왔다.

경남은행은 이번에 8권의 향토문화책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집으로 만들어 지역 주요 기관이나 학교,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지역 각 초등학교에 배포한 책자들은 학교에서 부교재로 채택할 만큼 교육적 자료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향토문화선집은 "경남문화재 100선", "경남 무형문화재", "우리고장 전설·속담 이야기", "우리고장 섬·바다 100경", "우리고장 자연을 찾아서", "우리고장산따라 강따라", "경남문화재", "우리고장 길 따라 마을 따라" 등 총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경덕 은행장은 "민족의 고유 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자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찾아내고 널리 알리는 데 지역은행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BS 경남방송)

“북촌 한옥마을도 사라질 위기”

역사·문화적 고찰이 전혀 없는 개발주의로 북촌 한옥마을, 세운상가 양쪽길 등 서울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선 개발지역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자료 조사와 기록 과정을 거친 뒤 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민포럼 주최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역사도시 서울의 근대적 성격과 문화유산’ 포럼에서 “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의해 유서깊은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개발지역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의무화해 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보존 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사적동 한옥마을의 경우,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한옥마을이지만 주상복합건물인 ‘경희궁의 아침’이 허가되면서 완전히 그 자취가 사라졌다”며 “또한 종로 1가 피맛골을 밀고 지은 ‘르메이에르’ 같은 주거용 단지 역시 역사적 보존성을 무시한 지역개발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이 외에도 왕십리 뉴타운 안 한옥마을과 청계천 주변 세운상가 양쪽길 등을 시의 개발주의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꼽고, 이에 대한 시의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 개발우선주의 정책을 막기 위해 ‘건물철거 허가제’ 등 좀 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강찬석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은 “런던은 도심에 있는 건물 하나 허무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리는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서울시도 ‘건물철거 허가제’를 실시해 적어도 50년 이상 된 건물을 허무는데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존 원칙이 적용되는 ‘문화재’ 개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동산’인 건물 보존에서 더 나아가 생활 문화유산까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하다못해 ‘교복단추’, ‘빨래판’ 등 근대에 사용했던 물건에까지 보존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여주 최고의 도예명장 뽑는다

경기 여주군은 전통문화 계승과 도예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제1회 여주군 도예명장”으로 선정키로 했다.

대상은 현재 여주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 20년이상 종사한 도예가로서 읍·면장, 여주문화원장, 도자기조합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은 ▲장인정신과 전통도자기문

화 계승발전 기여도 ▲도자기 제작관련 기술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 기여도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 경력 등이다.

도예명장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4월 23일 ‘제17회 여주도자기박람회’ 개막식에서 증서와 메달을 수여 받는다. (뉴시스)



태안 벼加里마을 그린투어의 성공모델로 떠올라

충남 태안의 벼加里마을(www.byutgari.com)이 그린투어의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갯벌과 염전 등 동네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체험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이 마을은 그린투어를 하기 전에는 호당 농외소득이 50만원 정도로 가난했다. 노인들이 늘면서 굴 채취와 쌀농사로만 생활하기에는 무척 어려웠다.

그러던 중 2001년 태안농업기술센터 고경미 생활개선계장이 '전통테마마을' 사업으로 마을 주민의 소득을 올리자는 제안을 했고, 주민들은 4차례 총회를 열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년 뒤 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된 후 한원석 추진위원장(68)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마을 주민이 뭉쳐 향토자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위원장은 "자랑하고 싶은 향토자원과 도시민이 좋아할 프로그램을 일치시키는 작업에 마을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말했다. 우선 도시민들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동식물과 자연경관을 소개하기로 했다. 백사슴 12마리가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을 보여주고 거북바위에서의 해안선 보기, 석양 무렵 구멍바위와 수평선 보기를 주요 테마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주제가 '벼加里 환상

코스체험'이다. 마을회관 출발→동물농장 구경→거북바위에서 오자미 만들어 소원 빌기→푸른 해안선 감상→바닷가 모래밭에서 숯대를 세워 도농의 믿음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마감한다.

벼加里마을 손영철 사무장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도시민들이 열광할 줄 몰랐다"며 "이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신뢰하는 방법을 농촌체험을 하면서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의 농외소득은 2001년 가구당 5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평균 7백50만원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2001년에 100여명에 불과하던 마을 방문객도 지난해 1박 이상 체험객만 8,000명을 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의 보조금을 2억원만 받고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지역재단 유정규 박사는 "이 정도 관광객이 오려면 적어도 5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벼加里마을이 이처럼 성장한 데는 산이나 바다, 갯벌 등 지역에 내재한 향토자산을 잘 활용하고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한 것이 동력이 됐다. 벼加里마을 사례는 농산어촌의 여메니티가 뛰어난 곳에 관광객들이 몰려 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향신문)



‘해신 장보고’ 촬영지 신규 관광지로

전남 완도군 ‘해신 장보고 촬영지’가 신규 관광지로 지정된다.

성 울포해수욕장, 무안 회산연꽃방죽 등 3개소는 지정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제3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됨에 따라 해신 장보고드라마 세트장과 천년고찰 화순 운주사, 장흥 장재도-정남진 우산지구, 완도 신지 명사십리, 진도 아리랑마을, 신안 압해월드테마파크, 증도갯벌 생태공원지구 등 7개소를 신규 지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지정관광지 가운데 담양호와 보

전남도는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조정의견을 반영해 관광지 지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규로 관광지 7개소가 추가 지정될 경우 관광시설 투자유치에 가속도가 붙어 전남 관광개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진주국제대, 강우문화연구소 설립

경남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교는 역사와 문화를 통해 지역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강우문화연구소(江右文化研究所)를 설립했다.

강우문화연구소는 강우지역 즉 서부경남 지역의 유목사와 역사, 도시문화, 고건축물, 복식, 전통문화, 주거문화, 문학, 전통

식품 분야에 모두 14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연구와 조사 ▲연구발표, 강연회, 강좌 개최 ▲연구논문집 등 학술간행물 발간 ▲자문, 연구용역의 수행 ▲연구장려, 우수업적 표창 ▲관련기관 제휴와 협력 참여 등 사업을 벌인다. (연합뉴스)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에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쾌적하고 능률적인 선진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실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높이 평가돼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동시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자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주제로 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역시 매년 80여만명의 관광객과 17개국 외국공연팀이 참가하는 세계적 축제로 성장했다. 안동시는 특히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축

제를 지향, 전국 문화관광 부문 축제 중 최초로 회장사업자 및 광고대행사를 모집운영했다. 이를 통해 4억1,000여만원의 수익을 냈고 3억원의 경비를 절약했으며 생산유발 191억원, 부가가치유발 91억원, 소득유발 57억원 등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역 축제를 지역 특산품인 하회탈, 안동 간고등어, 안동소주 등과 접목시켜 안동 브랜드의 명성을 높였다. 김휘동 안동시장장은 “전통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강화도 종합 휴양지 꿈꾼다

역사·문화유적의 보고(寶庫)인 강화도가 종합 관광휴양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과 민간 기업들이 2~3년 전부터 강화도 곳곳에 대규모 관광·레저·휴양시설에 나섰다.

정부와 인천시도 강화도 해안 순환도로와 연륙교 건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강화도의 자연이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은데다가 강화제2대교인 초지대교의 개통으로 강화도에 대한 교통 접근이 한결 쉬워져 역사·문화유적과 다양한 관광레저 시설이 어우러질 경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유병호 강화군수는 최근 "제적봉 전망대에 이어 민통선 북쪽에 화문석문화관, 자연사박물관 등을 건립할 방침"이라며 "이들 문화·관광시설 건립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민통선 북쪽 지역의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화군과 민간기업들이 현재 조성·계획 중인 크고 작은 관광·레저·휴양시설로는 강화영상단지, 해강리조트, 아일랜드스파, 삼산온천휴양지, 고인돌 공원화사업, 제적봉 전망대 등 모두 20여 개에 달한다.

이중 관(官)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오는 6월 1단계 준공 및 개관 목표로 선원면 연리 13만평 부지 위에 조성 중인 강화영상단지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강화군과 (주)시네랜드가 모두 80억원을 투자한 강화영상단지는 현재 1단계 부지 8300여평에 중앙청, 서울시청, 덕수궁 등 1950~70년대 서울 모습을 담은 건물들에 대한 철골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강화군과 시네랜드는 1단계 사업을 마친 후 2단계로 올해말부터

오는 2008년까지 일대에 고려시대 황궁과 민속마을을 재현할 예정이다. 시네랜드 이기문대표는 "강화영상단지내 시설물은 한두번 촬영을 위한 오픈 세트가 아니라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 구조물"이라며 "강화영상단지가 앞으로 TV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고 말했다.

해강리조트(스키장), 아일랜드스파, 삼산온천 휴양지 등은 순수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해강리조트는 레저회사인 해강이 모두 746억원을 들여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7년 완공 목표로 길상면 선두리 정족산 일대 19만5000여평에 조성 중이다. 아일랜드스파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길상면 초지리 해안가 일대 477000여평에, 삼산 온천 휴양지는 삼산면 매음리 일대 3만여평에 각각 들어선다. 이들 온천단지는 온천장, 콘도, 상가, 갯벌체험 시설, 전망대 등을 갖추게 된다.

고인돌 공원화사업, 강화 역사박물관 건립, 제적봉 전망대 건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강화문화관 건립 등은 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고인돌 공원화사업은 강화군이 국비와 시비 45억원을 들여 지난 2003년부터 국내 최대 고인돌 집결지이자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하점면 부근리 317 일대 2만 2000여평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화군은 이 공원 부지안에 별도로 134억원을 들여 오는 2008년까지 강화 역사박물관도 건립키로 했다.

고인돌공원은 강화도 안에 흩어져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고인돌들을, 강화 역사박물관 역시 강화도내 산재되거나 수장고 안에 보관 중인 각종 문화유적들을 집대성하게 된다. 제적봉 전망대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모두 25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2006년 완공 목표로 민통선 북쪽인 양사면 북성·철산리 일대 3000여평 부지에 조성 중이다. 제적봉 건립지 일대 해안은 북 한의 개풍군 고도리에서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일대는 새로운 수도권의 안보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강화도내 역사유적지와 관광레저 시설을 돌아 볼 수 있도록 해안도로와 연륙교 건설

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강화읍 갑곶~화도면 내리 일대 19.05km를 완공한데 이어 내년까지 화도면 내리~내가면 외포리 구간 8.9km를 추가 개통기로 했다. 양사면 인화리와 교동면 봉소리를 연결하는 전장 2.3km의 연륙교(교동도)는 정부의 국도 연장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문화일보)

인천의 역사·문화 9권의 책으로 발간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천 역사가 책으로 나왔다. 인천시 산하 역사자료관이 최근 펴낸 9권짜리 책자다. 이는 2003년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천사 자료집'을 펴내면서 시작한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작업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이뤄낸 성과다.

12명의 역사학자들이 선사시대부터 인천 상륙작전에 이르는 인천 역사의 여러 마디를 정식 논문으로 써 묶은 '인천역사', 1899년 나온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를 번역하고 주석을 단 '역주 인천부읍지', 광복 뒤 미군정기에 인천에서 일어난 일들을 날짜별 자료로 모아 설명한 '미군정기 인천자료' 등이 우선 눈에 띈다.

또 1892년 인천을 찾은 일본인 기자가 쓴 책을 번역한 '역주(譯注) 인천사정(仁川事情)'과 역시 1908년 일본인이 쓴 '인천개항 25년사' 역주본, 인천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초기 이민 자료를 모은 '근대의 이민과 인천' 등도 상당 부분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막상 시민들이 인천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면 자료가 마땅치 않아요. 그것들을 찾아 엮어놓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역사자료관의 강덕우(姜德雨·49)·강옥엽(姜玉葉·여·45) 두 전문위원은 “인천의

자료를 시민들이 다 같이 보자는 뜻”이라고 이번 작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역사를 전공한 대학 강사와 교사, 향토사학자 등 45명이 필자로 참가한 이번 작업에서 두 사람은 기획뿐 아니라 원고도 쓰고, 다른 필자들의 원고를 정리하고, 책을 엮어내는 1인4역의 역할을 하며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두 사람 모두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했던 정통 사학자. 그런 만큼 이번 작업에서는 근거자료 없이 대충 이야기를 만들어 내거나,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글을 번역하는 일을 특히 경계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인이 쓴 글의 번역서에는 그들의 식민사관을 염두에 두고 글을 살펴 읽으라는 식의 설명이 ‘일러두기’나 각주의 형태로 꼭 들어가 있다.

두 사람은 유명무실한 ‘인천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서술시처럼 상설기구로 운영된다면 이런 작업도 좀더 여유를 갖고,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각각 1000권씩 짙은 이번 책들은 시내 400여개 초·중·고교를 비롯해 도서관과 관공서 등에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또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문화관광체육국→자료실)에도 모든 내용을 파일자료로 올려 놓았다. (조선일보)



한류 성공하려면 태국, 베트남 아줌마 공략하라

“태국과 베트남에서 일본 드라마가 10~20대 젊은층을 소구하고 있다면 한국 드라마는 주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뉴스레터에 기고한 윤재식 연구원은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교두보:베트남과 태국’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한류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지역으로까지 한류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의 토대를 공공히 하기위해 각국의 다원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 밀착형 진출방안이 시급하다”면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강국인 태국과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한국문화에 호의적인 베트남은 비록 일본이나 중국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주변국가에의 한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교두보로서 기대가 되는 국가들이다”며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한류 확산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이 20여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 방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요 시간대에 편성되고 있으며 1997년 KBS ‘느낌’ 진출이후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급증했지만 최근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전체 텔레비전 드라마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5%정도로 중요하며 한국 드라마의 주 시청자는 주부와 학생들이라고 진단한다.

윤연구원은 태국의 경우 2003년 현재 국내 프로그램 수출편수는 2002년에 비해 34.8% 증가한 476편에 달하며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45.3% 증가한 59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태국에서의 한류의 고조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한 뒤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특히 좋아하는 주부층을 공략할 수 있는 드라마의 수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일리)

여행단신

“4대문안 도보관광코스로 서울여행 하세요”

서울시는 2003년 8월부터 정동·경복궁·창경궁일대 등 3개 지역, 6개 코스의 도보관광코스를 운영 중이다.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 지난해에 1만8백명이 이용했다. 그 중 1,326명이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오는 10월에는 청계천과 북촌 한옥마을 코스가 추가로 선보인다.

도보 관광에 참여하려면 1~20명 단위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전화(02-3707-9453)로 3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영어 34명, 일어 30명, 중국어 2명 등 66명이 있으며 서울시는 3월초에 추가로 해설사 20~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색채의 미술사 - 샤갈전’에 66만명 관람객 몰려



한국일보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색채의 미술사-샤갈’ 전

이 총 관람객 66만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지난해 11월13일부터 열린 부산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 16만명의 관객이 몰렸다.

부산 전시에 앞서 지난해 7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100일 동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는 유료관객 39만 5,000명 등 총 50만명의 관객이 찾아 국내 단일 전시 사상 최대 관람객 기록을 세웠다. (한국일보)

진도군 관광수용 태세확립 시범 지자체로

진도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관광수용 태세 확립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받았다

최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서울 소재 롯데호텔에서 김경부 진도군수, 이수일 호남대학교 총장, 한국관광공사관계자, 국내 주요언론사 및 여행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수용태세 확립 시범 자치단체 지정 조인식을 가졌다는 것.

이같은 시범 자치단체 지정은 군이 지난해 9월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호남대학교와 한국관광공사에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도군을 학계와 협력해 관광

수용태세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수용태세 모범 모델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내 관광수용태세 혁신팀을 특별기구로 구성해 전국 지자체 중 진도군을 시범지자체로 지정하게 됐다.

군이 시범군으로 지정됨에 따라한국관광공사는 진도군에 관광안내 센터 운영방안, 지역축제 활성화, 관광안내체계 및 주요 관광지 환경 개선 등을, 호남대는 관광행정 정책의 전반적인 진단 및 개선방안, 관광업 종사자의 친절마인드 제고 그리고 국내외 관광 산업의 동향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 수용태세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고심을 해 왔으며 날로 쇠퇴되는 농수산업을 활성화하고 관

광산업과 연계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던 끝에 시범지자체로 지정돼 21C 문화예술 및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서해안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개통 그리고 웰빙관광 시대를 맞아 도시민의 동경의 대상인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을 관광자원화하는 시책을 구상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개원된 국립남도국악원의 금요공연과 진도 토요일속 여행 등을 통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선진화된 관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남권의 거점 관광지로 시범 육성하여 2010년까지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가일층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등일보)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화관광부(장관 鄭東采)는 2005년도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관광대표축제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18개 축제를 지난해 12월 23일 선정발표했다.

2005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축제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대표축제의 숫자(’04년 23개 ’05년 18개)는 줄이되, 지원금(’04년 21억 5천만원 ’05년 25억원 / 최우수 ’04년 2억원 ’05년 2억 5천만원)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축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특화해 나아가기 위해 유망축제를 새

로 도입하는 등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이원화하기로 하였다.

문화관광축제의 선정·지원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37개 축제를 추진한 결과, 외국인관광객 23만명을 포함하여 총 2,286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했고 경제효과 또한 8,352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문화관광축제〉

구 분		축 제 명		지 원 내 역
		상반기(20개)	하반기(25개)	
대표 축제	최우수 (3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축제별 사업비 2억5천만원 지원
	우수 (7개)	춘천국제마임축제 함평나비축제	금산인삼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양양송이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강경젓갈축제	축제별 사업비 1억3천만원 지원
	지역육성 (8개)	대구약령시축제 한산모시축제(서천) 무주반딧불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하동야생자문화축제 남원춘향제	보령머드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전남)	축제별 사업비 6천만원 지원
유망축제 (9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보성다향제 인제빙어축제 연천구석기축제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광주김치대축제 난계국악축제(영동) 풍기인삼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축제별 사업비 4천만원 지원
예비축제 (18개)		지리산한방약초축제(산청) 팔만대장경축제(합천) 문경차사발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광안리어방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북제주)	강화고인돌문화축제 효석문화제(평창) 봉화송이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한국공예축제(광주) 무안백련축제 원주한지문화제 온양옹기축제(울산) 장단공예축제(파주) 모양성제(고창)	

진주시 의상·바이오·주민자치 등 3대 축제 개최

경남 진주시는 올해 10월에 '2005 세계 의상 페스티벌', '바이오코리아 2005', '2005 국제주민자치센터박람회' 등 세계적인 3대 축제를 마련, 진주를 알리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2005 세계의상페스티벌 행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이탈리아, 브라질, 일본, 미국 등 세계 50여개국이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쇼를 비롯한 디자이너 한복쇼, 현대의상쇼, 주한 외국대사부인의 한복쇼, 한국전통예술공연 등 다채롭게 행사를 진행하여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참가한 외국인들에게는 전통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예술의 도시 진주를 국제적인 도시로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100년 전통의 진주실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진주실크의 우수한 이미지를 부각 전파시키고 실크산업의 중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진주실크 산업이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바이오코리아 2005 행사는 건강과 행복이란 주제로 국내 바이오 업체 120개사를 참가시켜 150개 부스를 설치, 바이오 신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오 관련 전국대학 교수 등 석·박사 1,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과 바이오기업간 파트너링,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바이오 구인구직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 행사로 인해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역량 제고와 바이오신제품의 마케팅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새

로운 바이오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한 국내 바이오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진주가 바이오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 국제주민자치센터박람회 행사는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호주, 일본, 독일 등 각급 해외국들과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서 5만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행사로 진주의 관광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어 향후 진주시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기회로 활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영석 진주시장은 "올해 개최할 빅 3행사로 지난해 진주남강 유등축제와 APEC-TWG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살려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도록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빅3행사가 진주 실크축제,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우리의 우수한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고 명실상부한 21세기 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해운대구 컨벤션 · 영상 · 해양레저 특구로

부산 해운대구가 최근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特區)로 공식지정되면서 '국제 문화관광 도시'로의 도약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별히 정부 예산이 지원되진 않지만, 특구 지정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권한이 해운대구로 이양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양레저 타운을 조성해 컨벤션·영상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레저 '허브' 조성** = 특구지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해양레저 시설의 대거 건립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등 총 390만평 부지에 2007년까지 모두 70억원이 투입돼 각종 레저·교육 시설이 세워질 계획이다.

해운대구 송정동 산86의 25 일대에는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해양 레포츠 이론 및 현장 교육을 함께 다루는 교육·체험기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체험기지는 수영, 요트,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포츠 이론 및 현장교육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시설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20억원을 들여 요트 계류장 두 곳과 '해양스포츠 컨트롤 하우스'를 만들게 된다. 해양스포츠 컨트롤하우스는 관내 해수욕장마다 '시즌 스포츠'를 지정한 뒤 관련 대회와 축제 등 각종 이벤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특구 투자의사를 밝히는 전화가 계속 오고있다"며 "해운대를 우리나라 해양레저의 '허브(Hub)'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컨벤션·영상산업 '탄력'** = 지역 관광·컨벤션 업계에서는 특구 지정으로 컨벤션 및 호텔산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벅스코 관계자는 "외국 비즈니스 맨들을 유인하는 고급 레포츠 타운이 조성되면 국제회의 등 각종행사를 유치하기가 훨

씬 유리하다"며 "부산에 놀거리가 많아지면 주말 뿐아니라 주중에 유입되는 외부 고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앞으로 이 지역의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선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구청장이 사증(VISA)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등 출입국 지원도 가능해진다.

파라다이스호텔 여은주 실장은 "지난해만 해도 컨벤션 산업 관련 고객이 17%나 증가했었다"며 "해양레포츠와 컨벤션산업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작업 후반기지,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등의 설립이 이미 진행중인 영상산업의 경우에도 도로통행 및 도로점용 허가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되고, 도시공원 점용과 임시세탁장 설치도 허용된다.

◆**"따로 노는 행정"** = 그러나 특구 지정과 관련해 행정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운대구가 해양레포츠 체험기지를 만들겠다면서 동시에 요트 등 레포츠 선박에 대한 과세(課稅)를 추진하는 등 다소 상반된 행정을 펴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은 최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레저용 요트와 모터보트 선주 300여명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 차원에서 과세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 선주 절반 이상이 서울과 충남 대전, 제주 등으로 선박을 옮겨 버렸다.

해운대 특급호텔 객실이 1400여개밖에 안되는 등의 문제도 관건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객이 넘쳐나면 인근 모텔 등으로 옮겨 수용할 수 있지만, 외국 손님이나 장기투숙객을 꺼리는 모텔업자들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함께 웃고 나누는, 언제나 찾고 싶은 문화원

2004 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한 '2004 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의 부평문화원. 지난 2001년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부평문화원은 부평 지역문화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부평문화원이 최우수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그 비결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는 문화원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부평문화원의 자랑거리. 두 달에 한번 한국사회의 문화 현상을 강의한 아침문화강좌에서는 ‘손자병법과 21세기’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등의 문화 관련 주제를 각 영

인 천지하철 부평시장 1번 출구로 나와 50m 정도 걸다 보면 부평문화원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부평시민 56만 명이 거주하는 부평지역문화활동의 메카 부평문화원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에 위치한 이곳을 거점으로 지난해에도 화려하고 풍부한 다양한 문화활동이 전개됐다. 지난 1997년 부평지역 원로 및 인사들이 지역의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을 아쉬워하던 중 지역의 문화진흥 및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및 발굴을 위해서 문화원 설립을 논의해 이후 1998년 부평구청과 협의를 마치고 그해 5월 1일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부평문화원 원장에 고 조기준 선생이 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부평문화원은 태동했다.

‘아침 문화강좌’ 통한 시민교양 증진 힘써

부평문화원은 폭넓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화학교란 명칭으로 19기 진행 약 30여개의 문화강좌 개최를 통해 7천 명가량의 교육생을 배출한 것이다. 특히 시민교양강좌로 실시한 ‘아침문화강좌’는 어

역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초빙해 듣는 행사로 활성화 됐는데 약 2천4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밖에도 문화특강, 부평 21개 동풍물단 교육, 부평청소년연희단 운영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2004 부평풍물대축제’를 비롯한 ‘부평 청소년축제’ ‘부평 유스웨스티벌’ ‘정월대보름 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부평문화원이 주관하는 부평지역의 명물로 등장한 각종 문화행사이다.

특히 97년부터 개최해온 ‘부평풍물대축제’는 한국 고유의 축제전통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켜 성공적으로 추진돼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구청집계로 참가인원이 약 100만 명으로 대중적인 부평지역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사실 문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의 동력은 부평문화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평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제 개발 및 육성 지원책에 있다.

부평구 21개동 600여명을 상시지도하며 순수 아마추어 풍물단을 결성, 지도함으로써 부평을 대표하는 문화 역량의

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 인천 영코랄 합창단, 부평예술인회, 부평 OB합창단, 인천씨네마테크 등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고, 청소년 연의단을 비롯한 15개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를 이끌어 전반적인 문화활동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부평문화원의 자랑이라 하겠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부평문화원

부평문화원은 문화원 활동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일부 문화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시민 대상 강좌 위주의 활동 보다는 부평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활동 전반의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문화활동의 폭을 매우 넓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외 도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일본 키타큐슈, 중국 천진 등과 자매도시 협정을 맺고 조형물을 제작 설치했고 이어 2004년에는 미국 앵커리지, 중국 대련에 조형물을 제작했다.

민 문화동아리 연습공간을 마련해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문화 역사체험도 빠질 수 없는 주요활동 내용. 매년 문화원 회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문화역사 탐방을 하고 전통문화 체험과 워크숍을 통해서 풍물과 전통문화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향토문화 영역도 문화원의 빼놓을 수 없는 사업. 구민을 위한 향토사 강연회 개최, 부평의 향토 사료 연구나 발굴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 연구위원회 활동, 향토사료집 발간, 향토사료조사와 연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의 문화사업 적극 펼쳐

부평문화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타 문화원 보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평문화원 조성돈 사무국장은 “지역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기반시



설이 전무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나 20대 중후반 젊은층의 인구가 부평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평지역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고 외부유입 인구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질적이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있었다보니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만한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화원측의 생각이다.

이에 자연스레 청소년 대상의 유스페스티벌(성년식,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축제(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동아리 경연, 동아리 활동지원, 합창단, 연희단 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젊은 프로그램을 가동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문화프로그램 보다 더 특성화·전문화 계획

2005년도 부평문화원은 그 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안정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견고하게 다져가려고 한다.

먼저 주거는 부평에서 하지만 문화생활과 일상사업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20%에 달한다는 통계에 근거 부평사람으로서 애향심을 키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부평고유의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향토사료의 연구, 발굴 및 교육활동에 주력하고자 한다.

또 문화의 대중화 시대를 맞아서 문화원이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서 직장인, 노인, 주부,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각종 특강과 생활문화 강좌를 더욱 특성화, 전문화 시켜내 부평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수용해 내는 일이다.

지역내 문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각종 공연 및 행사의 주관도 부평문화원의 중점 사업. 청소년 축제와 유스축제를 개최하고 각종 워크숍, 경연대회를 열어 올바른 청소년 문화형성에 일조하고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부평풍물대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 등을 기획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부평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체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서 문화 동호회 지원, 구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문화부평의 정보지 발간 등을 펴내려고 한다. 그 동안 문화예술기반시설이 돼왔던 부평 문화사랑방 역시 소극장 운영으로 전환해 좀더 내실 있게 꾸려나가려는 것이 문화원측의 방향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문화 향기가 넘치는 공통터전을 만들기 위한 부평문화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글 _ 김준호 기자

인터뷰 | 조성돈 사무국장

“외주 맡기기 보다는 내부 처리로 노하우 쌓아”

- 문화원 활동의 중점사항은.

부평지역내 문화지도가 부재하다. 문화 인프라가 거의 없다보니 문화원이 그 역할을 대리수행하고 있다. 문화활동의 인력도 길러내고 문화활동의 공간제공과 기본 인프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문화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한 2004 지방문화원 관리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비결은.

무엇보다 문화원 내 직원들의 전문성이라고 본다. 어떤 행사를 하던 간에 우리문화원에서는 외주업체에 일을 전부 맡기기 보다는 이벤트든지, 회계든지 직접 그 업무를 진행하고 그 노하우를 쌓아서 다음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다보니 전문성과

문화 마인드가 길러져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 같다.

- 부평문화원이 타 문화원과 크게 다른 점은.

행정의 전문성과 지역문화내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가 잘 이뤄진다는 점이다. 소극장 형태의 문화사랑방도 운영하고 문화예술 동아리를 육성하는 것도 타문화원과 다른 점이다.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침강좌도 부평문화원의 자랑거리이다.

- 문화원 활동의 어려운 점은.

직원들의 야근 근무가 많다. 문화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인력부족과 예산의 부족을 실감한다. 그래도 보람은 크다.



매화, 동백, 산수유 봄날이 온게 맞지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움추려 있지만, 계절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이미 봄속으로 깊숙히 들어가 있다. 남도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겨, 겨우내 쌓인 몸속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새학기 신입생의 기분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발길따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움추려 있지만, 계절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이미 봄속으로 깊숙히 들어가 있다. 남도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겨, 겨우내 쌓인 몸속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새학기 신입생의 기분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섬진강변 80리 매화길 광양 매화마을

매화는 추위가 덜 가신 초봄에 꽃을 피운다. 특히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다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군자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러 흐르는 섬진강. 그 강변을 따라 구례 하동 광양으로 이어지는 80리 꽃길은 서둘러 봄이 오는 곳이다. 특히 섬진강 아래쪽 전라도 땅인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섬진마을은 3월초부터 들판과 산이 온통 매화세상이 된다. .

매화나무 사이사이에 심어놓은 파릇한 청보리에서는 구불구불 아지랑이가 연신 피어 오르고, 그 사이를 비집고 보이는 섬진강과 정겨운 농촌풍경. 한 폭의 잘 그려진 동양화 같다. 서둘러 봄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바람부는 날이면 눈처럼 하얗게 흩날리는 꽃잎이 장관이다.

섬진마을이란 이름대신 매화마을로 더 알려진 이 마을에 매화를 처음 심은 사람은 고 김오천 선생으로 1930년대부터 심어왔다. 지금은 그의 며느리인 홍쌍리씨가 대를 이어 청매실농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마을 70가구 중 60여 집에서 매화재배를 업으로 삼을 만큼 매화천지이다. 청매실농원은 해발 1,218m에 달하는 백운산이 섬진강을 만나 허물어지는 능선에 있다. 연분홍빛 매화는 어스름이 깔릴 때 좀 아주 멀리서 보면 마치 이효석이 ‘메밀꽃 필 무렵’에서 메밀꽃을 “온통 소금을 뿌려놓은 듯”이라고 표현한 것 마냥 희뿌연하다.

6년생 나무의 매화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청매실농원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화는 모두 세가지. 하얀꽃에 푸른 빛이 도는 청매화, 복숭아꽃처럼 붉은 기운이 도는 홍매화 그리고 눈이 부시게 하얀 백매화이다.

이즈음 백운산에서는 고로쇠 약수가 난다. 이 산 고로쇠를 전국에서 으뜸으로 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백운산 옥룡사(현재 터만 있음)에서 신라말의 고승 도선국사가 35년간 수행을

마치고 가부좌를 풀려다가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뭇가지에 의지하여 일어서려다 그만 가지를 부러뜨렸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졌고 그물을 받아먹고는 무릎이 펴졌다는 전설 때문에 이곳 고로쇠를 알아준다고 한다.

백운산의 옥룡사지의 동백숲도 꼭 가볼만한 곳. 도선국사가 사찰주변에 땅기운을 돋우기 위해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지금이 꽃봉오리가 터질 때다.

광양 매화축제 |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매화마을)에서 3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열린다. 섬진강을 따라가며 핀 매화가 마치 백설이 내린 듯 장관이다. 매화를 작품에 담기위해 사진작가나 화가, 문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광양시청, 061-797-2363)

한반도 봄 전령사 '해남 산이반도'

한반도 땅 끄트머리에 있는 해남은 풍부한 문화나 역사자원과 삼삼한 음식맛으로 유명하지만, 2월 중순이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곳이다. 해남 땅에는 해남반도, 산이반도, 회원반도 등 삼면이 바다인 반도만 셋이 있다. 이곳 지형이 마치 낙지발처럼 너울너울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산이반도는 방조제(영암·금호)가 완공되면서 영암호와 금호호라는 담수호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호수에 둘러싸인 땅이다.

특히 산이반도는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다. 2월중순, 늦겨울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릴 무렵, 해남의 대둔산 자락에는 잔설이 남아 있어도, 이곳은 이미 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지랑이 일렁이는 들판에는 파릇파릇한 청(靑)보리가 한뼘은 자라 있고, 지난해 심은 마늘은 겨울 추위속에서도 한 자 가까이 웃자라 있다. 월동배추며 감자, 고구마, 양파 그리고 쭉이나 냉이도 지천으로 돌아나 있다. 늦겨울에도 초록의 나른한 햇살은 금방이라도 졸음을 몰고 올 것만 같다. 어디에서도 겨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산이반도의 매력은 다른 지역에서 4월에나 느낄 수 있는 초록빛 향연을 한달이나 앞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이반도에서 가장 이름난 명소를 꼽자면 806번 지방도에서 2km 남짓 거리에 있는, 산이면 예정리에 70년대 말 약 12만평에 조성된 보



해매실농원. 3월초부터 매화가 피기 시작하여 3월 중순이면 이일대를 온통 하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인다.

벌건 동백꽃의 '무릉백원(武陵柏源)' 보길도

기왕에 해남에 갔다면 내친김에 보길도까지 둘러보고 와야 '봄구경 잘했네'라고 할 만하다. 보길도는 겨울철 중국대륙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해남반도에서 막아 주기



에 육지보다 겨울이 짧고 춥지 않다. 또 난류의 영향을 받는 난대지방으로 사철내내 아열대 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맘때 쯤이면 보길도는 철 지난 동백꽃은 별정계 떨어져 발 밑을 뒹굴고 대신 춘백(春柏)이 활짝피어 상춘객의 시선을 부여잡는다. 들판에는 푸른빛이 가득하여 온통 봄기운이 가득하다.

요즘 보길도는 미역채취가 한창이다. 이즈음 나오는 미역을 꼭지미역이라고 하여 매우 부드럽다. 5가닥을 1-2만원에 살 수 있는데 1년을 먹는다고 한다.

보길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윤선도이다. 그가 발견한 보길도라는 선계(仙界)는 복숭아꽃 대신 동백꽃이 만발한 무릉도원 아니 '무릉백원(武陵柏源)'이었다. 그는 13년을 머물면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다. 그가 연못을 파고 정자를 세워 시를 읊고 활을 쏘며 자연을 노래했던 곳 세연정은 담양 소쇄원과 함께 국내 조경문화의 백미로 꼽힌다. 또 아슬아슬한 절벽에 정자를 세우고 '신선놀음'을 했던 동천석실이나 부용동, 열녀김씨비각 등 고산의 자취는 끝없이

널리있다. 또 예송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40호)이나 '갯돌'과 '공룡알' 해변의 아름다움은 보길도만이 갖는 아름다움이다.

"열아홉 꽃봉오리 피어보지도 못하고" 구례 산수유마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수유 마을을 꼽으라면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 특히 위안리 상위마을이 가장 유명하다. 산동면은 국내 최대의 산수유 단지. 48개 마을에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산수유를 생산해 낸다. 면의 지명도 산수유의 열매인 '산동'에서 비롯되었다.

전북 남원에서 19번 국도를 타고 구례로 내려가, 산동터널을 넘으면 왼쪽이 지리산 온천입구이고 온천 뒤의 산자락이 온통 산수유꽃으로 뒤덮여 있다. 3월 중순부터 한 달 가량 꽃이 핀다. 3월말이 절정.

온천입구에서 가장 윗마을인 상위마을까지는 차로는 5분, 걸어서는 40여분 걸린다. 되도록 걸어서 가길 권한다. 상위마을은 온통 샛노란 산수유꽃으로 무릉도원의 별천



지에 온 착각이 들 정도. 상큼한 꽃내음에 코를 벌름거리며 산길을 걷는 맛이 운치가 있다. 고로쇠 약수로도 유명하며, 이시기에 제 맛을 볼 수 있다. 상위마을은 임진왜란 때 피난민들이 자리잡은 마을이다.

한때는 100여 집의 큰 마을이었는데, 한국전쟁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30여 농가가 모여 산다. 산수유가 많아 ‘산수유마을’이라고 불리며, 마을 뒤로는 지리산 노고단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게르마늄 온천과 화엄사, 천은사가 있다. “잘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간다. 열아홉 꽃봉오리 피어보지도 못하고..”라는 ‘산동애가’는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노래다. 당시 이 마을에 살던 19살의 백부전이라는 처녀가 국군에게 끌려가면서 불렀다고 한다.

‘갈치회 먹고 돌아와 입다무는 곳’ 남해군 미조만

미조만은 경남 남해군의 남쪽 맨 끝에 자리잡은 미조면의 항구이다. 아름다운 해안선이 38km에 달하고 조도, 호도라는 두 개의 유인도와 16개의 작은 섬들이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미항이며, 지금쯤 옷옷을 걸치지 않아도 될 만큼 봄기운이 성큼 와 있다.

남해군 삼동면 물전에서부터 미조항까지의 해안도로(일명 물미도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 울창한 다도해와 기암괴석의 장관에 눈을 빼앗기기 쉽다. 드라이브를 하는 사람은 운전애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다행히 천천히 절경을 감상하면서 가라는 듯, 구불구불한 도로가 계속 이어져 있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이곳은 해안가에 펼쳐진 마늘밭이 별난 볼거리이다. 이 즈음이면 한 뼘은 옷자란 파르팍한 마늘이 푸른 바닷가와 묘하게 채색을 이룬다. 국내 생산량의 6%를 차지할 정도로 온통 마늘밭이다.

비리기로 치자면 갈치나 고등어만한 생선이 있을까. 미조항의 별미음식은 갈치회와 멸치회. 갈치는 성질이 급해 잡는 즉시 죽여 버리는데, 횡감은 싱싱해야 한다. 비늘을 벗기고(호박잎 뒷면이 최고) 잘게 썰어 비릿내를 없애기 위해 막걸리에 한참을 행궤 물기를 꼭 짰 뒤 갖은 양념을 넣어 무쳐 먹는다. 봄에서 가을까지 제철이다. 한편 멸치회도 갈치회의 반열에 오른다. 3월부터 맛볼 수 있는 멸치회는 머리와 내장을 따고 무침회로 먹는다.

구례 산수유축제 |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원에서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열린다. 지리산 선머리에선 겨우내 쌓인 눈이 허연데, 그 산자락에 기댄 이 지역에서는 샛노란 산수유꽃이 눈부시게 피어있다. 풍년기원제, 산수유풍년기원 썰렁날리기 외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있다. (구례군, 061-780-2224)

이천 산수유꽃축제 | 이천시 백사면 산수유마을에서 3월말 개최된다. 이천에서 가장 높은 원적산 아래의 송말리에서 경사리에 이르기까지 산수유나무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경복궁 궁궐담과 크고 작은 갤러리로 문화의 향취가 은은하게 깔려있는 삼청동길, 삼청동과 북촌 한옥마을 사이에 있는 골목에 들어서면 왠지 편안하고 볼거리 많은 풍경들 속에 은은한 문화의 향취가 더욱 짙어져 푹푹 날리고 진동한다. 바로 아담하면서도 나름대로 독특한 모습과 생동감 넘치는 매력 물씬 풍기는 이색박물관이 있어 더욱 그렇다.

북촌지역은 예로부터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원서동, 재동, 계동, 가회동, 인사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이름에서 '북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당시로서는 왕실의 고위관직에 있거나 왕족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지역이었으며 곳곳에 아직까지 한옥들이 남아 정겨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북촌 마을의 풍경을 더욱 뜻 깊게 해주는 이색박물관들이 있다.

글 _ 지호진 기자

新 이색박물관

부영이박물관

서울의 삼청동 길은 길을 맞이 나는 거리이다. 경복궁에서 민속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고궁의 한적한 돌담길로 그렇지만 맞은편 크고 작은 갤러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길도 길을 만하다. 그 길을 따라 가다보면 진선북카페를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는 청와대 오른쪽으로는 삼청동 공원으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삼청동 공원길을 따라 올라가며 금융연수원을 지나 감사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조금만 가면 동화책이나 나옴직한 아름다운 작은 집이 눈길을 끄는데 부영이 벽화와 화분들이 하얀 벽을 수놓고 있는 부영이박물관이다.



24평 정도의 아담한 박물관 안의 풍경은 너무나도 정겹다. 아프리카 돌조각 부영이, 미국의 유명 작가가 사용했다는 부영이 돌보기, 부영이 그림 등 부영이를 소재로 한 봉제인형부터 그림 조각 도자기 병풍 시계 연 우표 등 2천여점이 빼곡하게 아담한 전시장을 메우고 있다. 마치 미술관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 온 것처럼.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7-21 • 전화 | 02-3210-2902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료 | 일반 5,000원 / 초 중 고생 3,000원 (입장객에게 차와 음료 제공)

티벳박물관

〈티벳에서의 7년〉 〈리틀북다〉라는 영화나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읽고 티벳이라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삼청동 바로 옆 소격동에 있는 티벳박물관을 찾아가보자. 인사동 입구가 있는 안국동 네거리에서 백상기념관과 풍문여고 사이로 난 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아트선재센터와 정독도서관이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네거리를 지나 왼편 골목길로 접어들면 티벳박물관이 나온다. 부영이박물관에서 인사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기도 하다. 1층과 2층이 전시장이며 이곳에는 티벳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티벳의 불교미술, 생활용품, 복식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전시되고 있는데 티벳의 다양한 불상들과 함께 다양한 티벳 유물들을 통해 티벳 사람들의 종교와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6-4 • 전화 | 02-735-8149
- 휴관일 | 없음
- 관람료 | 일반 5,000원 / 초 중 고생 3,000원 (전통차 제공)

세계장신구박물관

삼청동 공원으로 향하는 삼청동길 초입에 삼청파출소가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왼편으로 보면 노을빛 구리 건물이 있다. 이곳이 바로 세계장신구박물관이다. 3층까지 70여 평의 공간에 9개의 작은 방이 있으며 그 안에 아프리카, 중아아시아,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1천여 점의 세계 장신구들이 보석의 꽃밭, 벽장, 제단, 숲 등 다양한 개념으로 벽에 진열되어 있다.

팔찌-발찌벽과, 1천년이 지나야 보석으로 변한다는 호박을 벽면 가득 전시한 호박의 벽, 핸드백을 비롯한 근대 장신구방, 아프리카인들로 하여금 금은보석을 내놓게 한 유럽의 비즈와 상아가 전시된 방, 아프리카 가면이 전시된 가면의 벽 등등. 그리고 단순히 값나가는 명품 보석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전통이 담긴 소중한 세계의 장신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더욱 눈길을 머물게 한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화동 75-3 •전화 | 02-730-161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료 | 일반 5,000원 중·고생 3,000원 초등학생 2,000원

재미있는 성문화박물관

인사동에도 이름처럼 재미있는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의 이름은 ‘재미있는 성문화 박물관’. 삼청동에 ‘동양 성문화박물관’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가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름을 바꾼 것.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네팔, 티베트 등 동양을 중심으로 한 성 관련 미술품과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는 재미있는 성문화박물관은 낮 뜨겁게 하는, 그렇지만 재미있는 전시물들이 수두룩하다.

남녀의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티베트 밀교의 ‘마하칼라 금동합환상’을 비롯하여 2000년 전 중국에서 여성 자위기구로 사용됐다는 청동 모형 성기 등 다양한 성 관련 유물들과 함께 2층과 4층에 걸쳐 벽면에 춘화들이 전시돼있는데 성기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그린 일본의 춘화, 다양한 체위의 변화에 역점을 둔 중국의 춘화, 적나라한 모습보다는 소품이나 분위기 연출에 신경을 쓴 한국의 춘화 등 한·중·일 삼국의 춘화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4-4 •전화 | 733-3239
- 휴관일 | 연중무휴
- 관람료 | 5,000원(오후 9시까지, 19세 이상 입장 가능)

가회박물관

인사동이나 삼청동 곁에 전통 한옥촌으로 널리 알려진 가회동이 있다. 이곳은 바로 북촌한옥마을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다. 정겹고도 아름다운 전통한옥 풍경 속에 우리 선조들의 삶과 바람이 담겨있는 부적과 민화를 모아 전시하고 있는 가회 박물관은 가회동길의 단아한 풍경 속에 있는 또 다른 이곳만의 멋이기도 하다. 3호선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를 지나 감사원 방향으로 쭉 직진해가면 궁중음식무형문화재인 황혜성 선생과 한복려씨가 운영하는 전통병과교육원이 나오고 그 뒤로 바로 가회박물관이 있다. 옛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는 민화, 주술적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벽사그림 외에도 통일신라의 인면와, 귀면와, 다양한 부적과 부적으로 만든 병풍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250여 점의 민화와 750점의 부적, 150점의 전적류 및 기타 민속자료 250여 점 등 총 1,500여점의 유물이 소장·전시되어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나면 관람객이 직접 부적을 찍고, 귀면와를 탁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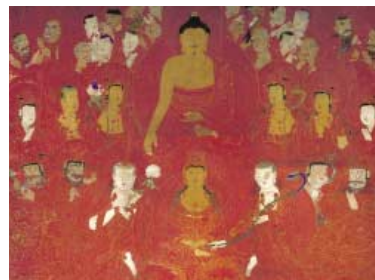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1-103 •전화 | 02-741-0466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료 | 일반 3,000원 초 중 고생 2,000원 (녹차 무료 제공)

불교미술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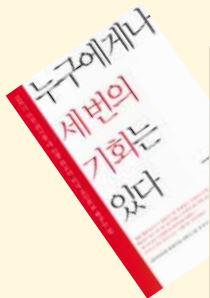
가회동에서 한 블록 옆, 재동 현대사옥과 창덕궁 돌담 사이길로 올라가다 보면 개성음식으로 잘 알려진 용수산이라는 음식점이 나오고 그 뒤로 석탑이 세워진 마당을 끼고 있는 불교미술박물관이 호젓하게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 앞마당에 놓여진 석탑과 부도들은 모두 신라시대의 것들이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수준 높은 불교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대웅전을 연사시키는 유물배치 속에 불상, 불화, 조각, 공예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1전시실과 조선의 불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제2전시실, 아름다운 불상과 재미있는 나한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제3전시실로 구분되어 유물이 전시되었는데 이중 조선시대 제작된 수월관음도 중 가장 뛰어난다는 보물 1204호 <의경등필수월관음도>가 눈길을 끈다. 박물관과 함께 연암다원이라는 전통찻집도 있는데 오래된 일본식 건물로 구석구석 6개의 방이 있는 독특한 실내구조로 되어 있는 운치 있는 휴식공간이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08-4 •전화 | 02-766-60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료 | 일반 5,000원 초 중 고 생 3,000원

New Books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 | 간다 마사노리 저, 이선희 역, 296쪽, 12,000원, 랜덤하우스중앙

월풀 재팬의 CEO로 일하던 시절부터 ‘돈벌이의 천재’ ‘하늘이 내린 백만장자’라는 화려한 닉네임을 달고 다녔던 저자 간다 마사노리가 소설의 형태를 빌려 인생에 대한 관점과 성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 사람들은 흔히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위기를 극복해가며 살아가기란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 이 책은 깊어가는 불황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요즘, 내게 닥친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는 ‘희망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경영 소설이다. 그는 소설속의 ‘나’인 다쿠씨의 입을 빌려 자신이 온 몸으로 체득한 성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신화의 땅 고구려 1 | 윤명철 · 김남석 저, 200쪽, 8,800원, 고래실

어린이들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민 고구려 역사 문화유적 답사 동화. 1권에서는 ‘백두산 답사와 고구려 역사속의 신화를 찾아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답사 장소를 통해 신화와 역사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록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세계를 화려한 사진과 설명이 곁들여져 벽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나올 2권 <산성의 나라 고구려>에서는 고구려 성을 답사함으로써 이곳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 고구려인들이 어떻게 국난을 극복했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고구려의 패망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답사를 통해 전개한다.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전 한국을 걷다 | 아손 크렙스트 저, 김상열 역, 384쪽, 14,800원, 책과함께

러일전쟁부터 을사조약에 이르는 매우 긴박한 시기에 조선을 다녀간 스웨덴 기자를 통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사회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이 서양 기자는 면직의류회사 사장이란 명함을 가지고 밀입국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달 남짓한 체류 기간 동안 저자는 기자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과 한국에 대한 따스한 시선으로 그 어느 누구도 남기지 못한 귀중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오늘의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하고 있다. 1904~1905년의 한국을 담은 140여 컷의 사진은 이 책의 백미다. 아손 그렙스트는 직접 사진을 찍고 설명도 직접 달았다. 저자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지게꾼, 빨래터의 여인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는 사람들, 서울의 기생들, 황태자비의 장례식 광경, 강화도의 포구... 100년 전 사람들과 100년 전 한국을 담은 이 사진들은 한국 근대사의 귀중한 사료이다. 이 책의 12장 <코레아의 민담과 우화>에는 아손 그렙스트가 한국을 여행하며 채집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고양이와 사자” “어느 사냥꾼의 실수” “뱀의 복수” 등 대부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다. 이 장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맥이 끊겨버린 구비전승을 되발견하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편에서는 온갖 귀신을 섬기고 무당이 판을 치는 샤머니즘과 감옥에서의 잔인한 고문과 사형 집행 제도 등 어두운 모습을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양인의 눈과 마주친다. 책의 말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상황과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보론 “러일전쟁기 한반도 정세와 대한제국”을 실었다.



진취 바이러스 | 최나미 저, 홍선주 그림, 179쪽, 7,000원, 우리교육

우리교육 힘찬문고 36번으로 발간된 동화집. 이 책은 6학년 아이들의 삶을 담아낸 동화 세 편으로 이뤄져 있다. 표제작 '진취 바이러스'에서는 성적 위주의 학교 제도와 수동적인 어린이 세계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주인공 진취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어른들에 의해 바이러스와 같은 아이로 내몰린다. 오히려 자기 생각에 솔직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로 찍혀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되는 즐거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개성과 생기발랄함을 억압하는 사회를 꼬집는다. '턱수염'은 아버지애 대한 미움으로 뽕뽕 뭉친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희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독특한 글맛을 느끼게 한다. '청소함 옆 자리' 역시 제목에서 주는 것 처럼 그냥 지나쳐버릴 어린이 세계의 한 단면을 동화로 잘 엮어냈다. 부모와 함께 읽을 만한 동화다.



죽비소리 | 정민 저, 326쪽, 12,000원, 마음산책

죽비는 선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 내리치는 불가의 회초리다. 졸음에 눈을 깜빡이거나 잡념이 머리속을 뱅뱅거릴 때 갈라진 대나무 두 짝이 부딪치며 '쨍' 하고 큰 소리를 내는 죽비는 온갖 잡념을 내쫓고도 남는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죽비소리처럼 우리 옛글에도 깨달음의 죽비소리가 숨겨져 있다. 지난해 '미치지 않으면(不狂) 미치지 않는다(不及)'는 화두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 저자가 고려초에서 조선말까지 활약했던 명문장가들의 옛문장 120편을 속아내어 번역하고 평설을 달았다. 이들 문장에 스민 청신한 기운은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게 하고 흐리멍덩한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회심(會心), 경책(警策), 관물(觀物), 교유(交遊), 지신(持身), 독서(讀書), 분별(分別), 언어(言語), 경계(警戒), 통찰(洞察), 군자(君子), 통변(通變) 이상 총 12 장에 걸쳐 문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옛문장들을 통해 세상 이치와 근본을 깨우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다 나은 삶을 일구어나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들레영토 희망스토리 | 김영한 · 지승룡 저, 188쪽, 9,500원, 랜덤하우스중앙

청년들이 열정으로 일군 야채가게의 성공담을 담은 책 '총각네 야채가게'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경영컨설턴트 김영한 씨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감성 공간인 '민들레영토'와 만났다. 국내 카페 브랜드 인지도 1위, 국내 외식업소 고객 만족도 1위,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카페 1위. 10년 전 10명의 카페로 시작, 현재 전국 21개의 지점과 올해 북경점 오픈 예정. 접속자수가 600만이 넘고, 매일 1만 명이 넘게 접속하는 홈페이지, 세미나실을 비롯, 도서관과 갤러리, 극단까지 갖추고 있는 카페... 이상은 민들레 영토를 설명하는 글이다.

그러나 10년전 민들레영토는 신촌의 기차길 옆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은 오늘의 민토를 가능하게 한 민토의 리더 지승룡의 감성 리더십과 그만의 독특한 감성마케팅 전략인, 마더 마케팅을 정리한 책이다.

'민들레영토'의 지승룡 소장이 카페마담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는 실패한 성직자이며 무일푼의 실업자에 불과했다. 손님이 많은 주말에 혼자서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쫓겨난 후 그는 바닥에 떨어져 반짝이는 동전 같은 '희망'을 주었다. 그것은 여섯 살 때 가졌던 '마담이 되겠다'는 꿈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떡볶이를 먹다가 떠오른 '가래떡을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곧 실천에 옮긴다.

첫날 2명에 불과했던 손님이 하루 1만 명으로 늘어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지승룡만의 독특한 서비스 전략이다. 손님을 대할 때 "드시고 더 드세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접하기로 한 것이다. 이른바 '마더마케팅'. 성공포인트는 "마더마케팅의 5C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신념(Concept), 문화(Culture), 고객(Customer), 친절(Courtesy), 커뮤니티(communitiy)다.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 소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문화 속의 성과 로맨스

부모·형제에게도 버림받은 ‘환향녀들’

우리네 여인들에게 1637년 병자호란은 국치 그 이상이었다. 제주도 인구와 맞먹는 50만명이라는 숫자가 청나라로 잡혀갔고 이 곳에서 모진 수모를 당하다 목숨까지 잃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고국으로 돌아온 여인네들이라고 웃음꽃이 만발하지는 않았다.

어버이도 몸을 더럽힌 여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가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같은 어미배에서 태어난 오라버니도 ‘나같은 목숨을 끊고 말았을 것이다’고 살을 도려내는 듯한 모진말을 서슴치 않았다. 시집을 간 여인은 말할 것도 없었다. 특히 시부모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남편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었을까? 그들은 도리어 한술 더 떠 ‘이혼청구소송’ 하기에 바빴다. 몸을 더럽힌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는게 이유. 더 고상한 이유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라는 것. 남편들은 환향녀를 ‘화냥년’으로 대했다. 그러나 인조 임금은 이혼을 허락치 않았다. 이 덕분에 환향녀들은 다행히 이혼만은 면했으나 남편들이 침을 얻어 재장가를 드는 바람에 마음도 추웠고 동짓날 밤도 길었다.

이처럼 병자호란으로 인해 북쪽 내륙 지역의 여인네들이 수모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보다 45년 앞선 임진왜란때에는 남쪽 해안지역의 여인네들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 이때도 남편들은 이혼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조임금은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절을 잃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그 대신 남편들은 ‘세컨드’를 얻느라 문턱이 닳아지도록 중매쟁이를 불러 들였다.

이같은 여성수난의 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부터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한나라의 임금이 정치를 잘못된 탓에 우리네 꽃다운 여인들이 낮설고 물설은 타국으로 끌려가 온갖 육체적 수모와 모욕을 당하다 드디어 목숨을 걸고 고국으로 도망쳐 찾아왔지만 이미 고국은 예전의 고국이 아니었다. 부모도 이웃도 형제도 남편도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커녕 ‘저년은 더러운 년’이라며 돌을 던져 여인네들이 나무에 줄을 매다는 경우가 허다했다. 청나라가 순결을 빼앗았다면 오히려 고국은 목숨을 앗아갔다.

그럼 청나라의 패배로 3백년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화냥년’ 역사는 끝났을까? 최근까지 국가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신대문제도 따지고 보면 ‘환향녀’ 문제와 별반 다를게 없는 ‘20세기의 현실’이다. “‘화냥년’ 그 욕은 살아졌는가?” 21세기에.